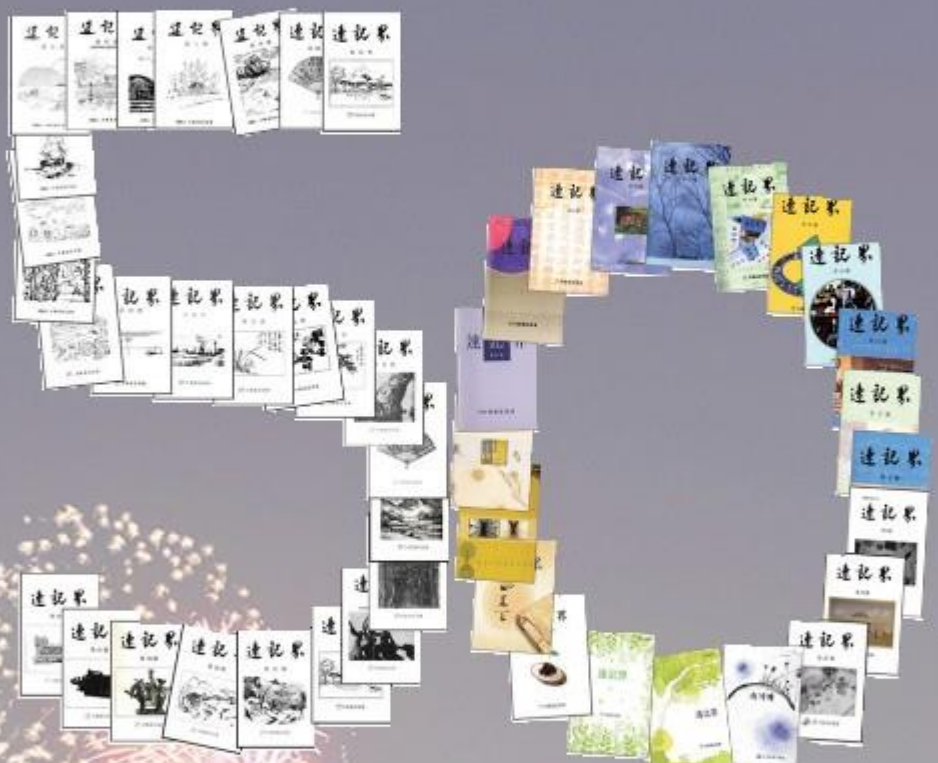
2014 제50호

속기계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표지설명

속기계 제50호 발간을 기념하여 1호부터 49호까지의 속기계를 "50"이라는 숫자로 형상화하였습니다.

표지디자인 이소영
사　　진 김진혁

CONTENTS

2014 속기계 제50호

04 머리말
전문직업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연마를 합시다 – 이철우

06 속기계 50호 발간 기념 축하메시지

10 2013 인터스테노
제49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보고 – 국제부
2013 인터스테노 빈기에 겐트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 이태범

34 연구논문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국어 정책 수행 현황 연구 – 안기철

48 기자수첩
제헌국회, 한국 속기의 요람 – 이다교 기자
외국의 속기업무 현황(영미의회) – 황유진 기자

68 역사 속의 속기인
한 여성 속기사의 위대한 사랑 – 홍기표

76 세미나
나의 속기학습세미나 – 안상훈

81 새의자
신임관리자 과정 해외봉사를 다녀와서 – 최은정
친구에게 – 장미경

88 새내기 인사
속기로 속전속결! – 손정아
돌고 돌고 돌고 그리고 시작 – 이서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노력의 보상은 반드시 온다 – 이소영

96 속기사 이야기
수필속기의 위력 – 천해성
교육속기란 무엇인가? – 차은영 교육속기사

102 회원동산
두바이 모래언덕, 나를 시로잡다! – 홍미지
7년차 국회의원 비서관이 바라보는 "보좌관의 명과 암" – 박용기

112 협회 동정
제47회 정기총회

114 편집후기

머 리 말

전문직업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 연마를 합시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회장 이철우입니다.

제10대 회장을 맡게 된 후 속기계를 통해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는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속기인들의 상호 친목과 속기문화 발전을 위해 발간된 "속기계"가 제5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1955년에 대한속기학술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현재의 대한속기협회는 지난 60여 년 동안 속기문화의 보급과 홍보는 물론 학술적 연구를 꾸준히 하여 협회의 설립 목적인 기록보국과 공익을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또한 회원 간의 상호 친목과 교류, 속기문화의 보급을 위해 "속기문화"라는 기관지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의 "속기계"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 속기계가 올해로 50호를 맞이하게 되다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속기인 여러분!

세계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수단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쇄기술, 녹음, 영상 등으로 변해 왔듯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술들로 발달하게

여러분이 시대의 사관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통한 정보의 전달과 언어 속도는 빨라져만 가고 속기록에 남겨야 할 내용은 날로 전문화되어 그 범위 또한 방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기 환경의 변화는 우리 속기인들을 잠시도 방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끊임없는 자기 연마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속기인들은 자기 내부로부터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때이며, 폭넓은 지식과 정보의 습득은 물론 끊임없는 실력 배양으로 자기계발에 더욱 정진해야만 전문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원칙과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참담해하는 이런 사고는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원칙대로 제 역할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로 자신의 역할을 원칙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요.

속기협회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이 시대의 사관이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일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록에 대한 열정을 높이 사면서, 아무쪼록 우리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르게 기록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 또한 속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이 철 우

속기계 50호 발간 기념 축하메시지

속기계 5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속기계가 발전하고 계속 발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인들을 위하여 소식을 전하는 정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 조우석(전 국회 속기과장)

제가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직장이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응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못 주어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행사 있으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기계 5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이연희(1977~1997 국회 속기과 근무)

저는 1960년대에 국회의사당이 태평로에 있던 시절 재직했던 속기사 조창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여자 속기사들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국회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정치에 관한 것도 많이 알았고 또 김두한 의원 오물 사건 때 직접 제가 속기를 한 당사자이거든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 속기계 50호를 발간한다니 너무나 감회가 깊어요. 국회속기사들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면 우리나라 속기계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속기사들 더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창순(1964~1967 국회 속기과 근무)

속기계 50호 발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속기사들이 역사의 현장인 의회에서 남긴 이 기록은 사실은 국보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도 물론 중요하지만 1948년 의회민주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이 기록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후배들한테 또 어린 꿈나무들한테 회의록에 대한 설명, 의회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국회가 걸어온 길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속기계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황수 지도위원

Intersteno Federation and I personally wish to congratulate for the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Stenographic Association.

During its long history your association has been able to protect and develop the profession, by means of work and intelligence of people who wanted to spread their knowledge and their skill to future generations.

The friendship of your Association with Intersteno is the sign of the larger meaning you recognize to the profession of "stenographer": the activity of your Association on the international stage is largely appreciated and I hope that in the future Intersteno will be able to honor your support by organizing a meeting in your country.

Let the association know that Intersteno cares for the success of your activity and is willing to contribute.

AD MAIORA! (in Latin language it is a wish of "higher successful goals")

Fausto Ramondelli (Intersteno President)
인터스테노 회장

* 속기계 5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Rian Schwarz-van Poppel
(Vice President and IPRS Coordinator)
인터스테노 부회장 겸 IPRS 코디네이터

* 속기계 5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Danny Devriendt (Secretary Treasurer)
인터스테노 사무총장

제49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보고

국 제 부

기　　간 : 2013년 7월 11일(목)~7월 22일(월)

장　　소 : 벨기에 겐트

한국대표단(총 13명) :

- 단장 : 유회연(협회 회원, 국회)
- 대표 : 이경식(협회 전 이사장, 국회)
  손석련(협회 이사, 한국스테노)
  김점동(협회 이사)
  김한우(인터스테노 과학위원회 위원)
  김병수(협회 회원)
  백순정(협회 회원, 국회)
  정향인(협회 회원, 국회)

– 전시회 참가

이대선(한국스테노)

김종열(한국스테노)

– 경기대회 출전

이태범(국회)

김봉철(한국스테노)

윤여일(한국스테노)

참가국 및 참가인원

30여 개국, 600여 명 참가(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카메룬,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체코, 에콰도르,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미국, 벨기에 : 오프닝 시 참가국 소개 순)

참가목적

- 기록문화와 속기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논의 및 발전방안 강구
- 우리나라 속기기계 전시 및 속기방식 홍보를 통해 국제적 위상 증대
- 각국 의회의 속기 방식 및 회의록 발간 정보 교류 및 현안사항 논의
- 선진국 의회 속기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속기경기대회 참가

INTERSTENO 총회 참가 일정

일 자	장 소	일 정
7월 11일(목)	암스테르담 겐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경유 벨기에 겐트 도착
7월 12일(금)	겐트 브뤼셀	전시회팀 Artevelde University College에 전시회 부스 설치 벨기에 브뤼셀 방문
7월 13일(토)	겐트	참가 등록 INTERSTENO 카운슬 미팅(1차) 개회식과 축하행사 환영만찬
7월 14일(일)	겐트	IPRS 미팅(1차) 겐트 보트여행(Excursion)
7월 15일(월)	겐트	리얼타임 속기경기대회 IPRS 미팅(2차)
7월 16일(화)	리에주	리에주 방문(Excursion)
7월 17일(수)	브뤼셀	EU 의회 방문
7월 18일(목)	겐트	INTERSTENO 카운슬 미팅(2차) INTERSTENO 총회 경기대회 시상식 송별만찬
7월 19일(금)	브뤼헤	브뤼헤 방문(Excursion)
7월 20일(토)	겐트 암스테르담	벨기에 겐트출발 네덜란드 헤이그 경유하여 암스테르담 도착
7월 21일(일)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출발

INTERSTENO 총회 행사 주요 내용

1. 개회식(7월 13일)

총회 개최 장소인 Artevelde University College에서 도보 10분 정도 거리인 UFO UGent에서 개최된 오프닝 행사는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으로 이루어졌으며, 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이

오프닝

자국 국기를 들고 나와 자국 언어로 인사말을 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유회연 단장이 대표 단상에 나가 인사말을 했다.

오프닝 행사 후 Artevelde University College까지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거리행진을 했는데, 각국 국기를 앞세우고 여러 나라 회원들과 함께 걷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2. INTERSTENO Council meeting(중앙위원회)

〈참고〉

◆ **INTERSTENO 중앙위원회 어젠다**

1. President's report(회장 보고)
2. Minutes of the council in Prague: approval(프라하 위원회 회의록 보고, 승인)
3. Practical information on running congress(총회 진행 정보)
4. Election of the Jury President(Jury President 선임)
5. Nomination of the Jury leaders(Jury leaders 추천)
6. Election of the leader of the Scientific Committee(과학위원회 위원장 선임)
7. Nominations for the members of the Board 2013-2015 upon proposal of the Board(신임 집행부 선임)
8. Education Committee management(교육위원회 경영진)
9. Associated member-Nominations and annual fees(그룹회원 등록과 연회비)
10. Consolidation of National Representatives(국가의 대표 조정)
11. Date of the next Internet contest(인터넷 콘테스트 날짜 확정)
12. Proposals and decisions about Intersteno fees(회비 결정)
13. Next Council meeting(차기 중앙위원회)
14. Next Congress(차기 총회)
15. Other matters(기타 의제)

① 1차 세션(7월 14일)

중앙위원회

Fausto Ramondelli 회장 사회로 진행된 1차 세션은 위 참고 표상의 어젠다를 순서대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 2 · 3항 승인 후, 14항 차기 총회 장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2015년 총회 개최제안서를 낸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 결과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회장의 설명 후 2차 세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4항 Jury President로 현 벨기에의 Georgette Sante가 연임하기로 결정, 5항은 쉽게 결정되지 않아 2차 회의로 연기, 6 · 7항 어젠다 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이 2014년 카운슬 미팅 유치를 제의하여 2차 미팅 시까지 제안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 요구, 9항 준회원 임명, 10항 폴란드 새로운 대표자 보고, 11 · 12 · 13항은 2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폐회함.

② 2차 세션(7월 18일)

2차 세션은 1차 세션 논의 시 결정되지 못한 어젠다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항은 각 나라의 협조 부족으로 경기대회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했던 Jury leader 후보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많은 협조를 약속하고 다음 카운슬 미팅에서 확정하기로 함, 14항 차기 총회 개최 장소 논의에서는 미국 개최 제안에 대해 장소가 멀고 시간상 미국 NCRA 회의와 한 달 간격으로 열리는 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하고 베를린에서 개최할 것을 독일 위원에게 건의하였으나 독일 위원이 이를 고사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13항 차기 카운슬 미팅 개최를 제안했던 중국이 상하이 개최 조건으로 저렴한 항공사 알선 약속과 호텔 1일 숙박비 50유로만 회원들이 내고 회의 제반 경비는 모두 중국 측에서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승인, 6항 과학위원회 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Fausto Ramondelli 회장은 이탈리아의 Carlo Eugeni 교수를 추천하였으나 체코에서 중국의 Tang Keliang을 추천하여 잠시 정회하여 보드 멤버들끼리 논의 후 Carlo Eugeni는 과학위원장으로 중국 Tang Keliang은 이사

회 멤버로 결정, 11항 인터넷 콘테스트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12항 사무총장 Danny Devriendt의 예산회계 보고 후 단체 멤버십 연회비 175유로, 개인 연회비 45유로로 결정.

▷ 2014년 2월 이사회에서 차기 중앙위원회와 총회 일정 장소 확정
2014년 중앙위원회 : 중국 상하이에서 2014년 10월 22~24일 개최
2015년 50회 총회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015년 7월 18~24일 개최

3. INTERSTENO General Assembly(총회)(7월 18일)

〈참고〉

◆ INTERSTENO 총회 어젠다

1. Registration and counting of the present delegates(대표자 등록 및 집계)
2. Report of the President(의장 보고)
3. Discussion and approval of the President(토론 및 의장 승인)
4. Financial report of the Auditing Committee – Approval of the accounts(감사위원회의 재정보고서 – 계정의 승인)
5. Budget(예산)
6. Members(회원)
7. Membership fees for national groups and associated members(국가 그룹 및 회원에 대한 회비)
8. Election of the Board 2013–2015(2013년–2015년 보드멤버 선거)
9. Nomination of the Auditing Committee(감사위원회 후보 추천)
10. New council members(새로운 카운슬 멤버)
11. Ratification of the Scientific Committee Members(과학위원회 회원의 비준)
12. Proposal for the next Congress 2015(2015년 차기 총회 제안)
13. Reflection on the future by the new President(신임 회장의 미래에 대한 의견)

2차 중앙위원회 폐회 후 이어서 열린 총회는 카운슬 미팅에서 이미 논의되어 결정된 어젠다들에 대해 순서대로 추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 투표에 의해 결정된 보드 멤버는 다음과 같다.

총 회

회장 : Dr. Fausto Ramondelli(이탈리아)
부회장 겸 IPRS 코디네이터 : Rian Schwarz-van Poppoel(네덜란드)
사무총장 : Danny Devriendt(벨기에)
Jury President : Georgette Sante(벨기에)
과학위원장 : Carlo Eugeni(이탈리아)
교육위원장 : Simon Sun Hulmin(중국)
멤버 : James M. Cudahy(미국)
멤버 : Tang Keliang(중국)

4. 의회속기사부 미팅(IPRS meeting)

① 1차 IPRS meeting(7월 14일)

IPRS 코디네이터 Rian Schwarz-van Poppoel 사회로 세 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회원들이 주제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주제발표가 끝난 다음 참석자 전원을 네 분임으로 나누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국 대표들은 두 번째 주제인 근무조건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다.

▲ 주제발표

- 발제자 Randel Raison
  미국의 전자적 보고 현황(The State of Electronic Reporting in the United States)
- 발제자 Ayse Yedekci
  국회 보고 서비스에 신기술 적용의 한계 : 터키 의회의 경우(The limits of the applica-

bility of new technologies to parliamentary reporting services: The case of Turkish Parliament)

- 발제자 Eero Voutilainen, Maarit Peltola, Teuvo Raty and Niklas Varisto
  보고 규칙 : 핀란드 의회 기록담당부서에서 담화를 기록하는 원칙(Rules of reporting: the principles of representing spoken discourse in the Records Office of the Finnish parliament)

▲ 워크숍 주제

- Training(훈련)
- Working conditions(근무조건)
- Quality(질적 우수성)
- Editing the transcription of spoken text(발언 원문에 대한 편집)

② 2차 IPRS meeting(7월 15일)

1차 미팅 때와 같이 IPRS 코디네이터 Rian Schwarz-van Poppoel 사회로 세 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특히, 세 번째 주제인 네덜란드 기록담당부서의 발제 이후에는 수많은 질의답변이 이어져서 예상 시간인 18시를 훨씬 넘겨 19시까지 회의가 이어지는 열띤 모습을 보였다.

▲주제발표

- 발제자 Lorraine Sutherland(영국)
  검은 예술에서 검은 가운 - 국회 보고대학원 졸업장(From black art to black gown - a postgraduate diploma in parliamentary reporting)
- 발제자 Dominick M. Tursi(미국)
  속기와 속기기계 진화의 역사(History of shorthand and evolution of shorthand machines)
- 발제자 Herbert Houdijk and Matthijs Bakker(네덜란드)
  VLOS 대 2.0, 네덜란드 국회 보고 프로그램 다음 단계(VLOS vs 2.0, the next level in reporting)

③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in Brussels) 방문(7월 17일)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 방문은 IPRS 회원들만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사전에 확인 메일도 수차례 있었고 유럽의회에서도 메일을 보내주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하필이면 본회의장이 보수공사 중이어서 참관을 할 수 없어 많은 아쉬움을 주었다. 그러나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유럽의회 소개와 24개 언어로 발간되는 유럽의회 기록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인상적이었다.

EU의회에서

5. 컨퍼런스(conferences)(7월 16일)

이번 총회에서 과학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탈리아 Carlo Eugeni의 사회로 오전 1차 세션에서 네 가지 주제, 오후 2차 세션에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총회에서 마련한 리에주 여행을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 두었기 때문에 일정이 겹쳐서 컨퍼런스에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홈페이지상에서 확인한 주제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연설

- 발제자 Prof. Y. Gambier (핀란드)

  가독성과 접근성 - 오늘날 정보 처리 및 보급의 과제(Readability and accessibility - challenges in processing and disseminating information today)

▲주제발표

- 발제자 Bouchra Alami (프랑스)
  정보 쓰나미에 직면하여 장애인을 위해 TV 뉴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Making the TV news accessible to face the information tsunami for the disabled)
- 발제자 Guy Tummers (벨기에)
  다중언어 단체에서의 소통과 정보 – 베네룩스 국가들의 경우(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in multilingual bodies – the case of Benelux)
- 발제자 Tatsuya Kawahara (일본)
  자동음성인식에 관한 자막 처리 비디오(Subtitling lecture videos with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 발제자 Alessandro Tescari (이탈리아)
  Facing tsunami burocracy How to paste voice into a pdf file and sign it forever.
- 발제자 Jim Cudahy (미국)
  안녕하세요, NCRA – 구술 기록 프로젝트 : 속기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Hello, NCRA – The Oral History Project: Stenographers capturing personal stories)
- 발제자 Laura Batani (이탈리아)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력된 정보 쓰나미에 직면하는 데 대한 도움(Helping primary school students to face the keyboarding tsunami.)

6. 속기경기대회(7월 14일~7월 15일)

인터스테노 속기경기대회는 총 7종목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베이징 대회 이후 세 번째 참여하는 이번 대회에 리얼타임 부문에 이태범, 김봉철, 윤여일 3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참가선수 선발전 성격을 가진 국내 속기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고, 2011년 파리 대회 수상 경력을 가진 선수도 있었기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수상권에 들지 못해 아쉬움이 더 컸다.

▲ 각 종목별 참가인원(중복 참가 있음)

텍스트 프로덕션 293명

텍스트 콜렉션 51명

프로페셔널 워드 프로세싱 83명

쇼트핸드 스피치캡처링 89명

리얼타임 트랜스크립션 61명

다국어 속기 25명

회의록 작성 75명

7. 전시회(7월 12일~7월 15일)

인터스테노 총회 개최 장소인 Artevelde University College 입구에 설치된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7개 업체에서 다양한 첨단 속기 기계와 속기 프로그램에 대한 전시를 했고, 한국형 속기 장비인 CAS 전시에 총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8. 단체여행(Excursion)

이번 총회 중에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는데, 우리나라 대표단은 이 중 가능한 모든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벨기에의 아름다운 도시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인터스테노에서 마련해 준 가이드들의 영어 설명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한국대표단 김한우 교수님의 수준 높은 통역을 들으며 여러 군데 도시를 여행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였고, 이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인터스테노 집행부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 한국대표단 참가 여행

겐트 보트여행(Boattrip Ghent, Excursion 1) 7월 14일 15:00~17:00

겐트 구석구석 돌아보기(Nibbling through Ghent, Excursion 2) 7월 15일 13:30~15:30

리에주 방문(Visit to Liege, Excursion 3) 7월 16일 전일

9. 성과

-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속기 현황과 한국 의회속기와 기록문화의 선진성에 관한 홍보를 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대한민국 의회 관련, 속기 관련 다양한 발간 책자 제공)
- IPRS 미팅과 워크숍을 통해 각국의 의회 회의록 작성 과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듣고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
- 중국대표단과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창립 서명식을 갖고 향후 교류협력 강화 약속
- 전시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속기 기술 홍보

10. 건의사항

- 한국의 선진화된 속기 문화에 대하여 세계적인 국제대회 시 주제발표, 논문, 책자 소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인터스테노에서는 7종목의 다양한 속기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총회 여러 프로그램 중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리얼타임 부문만 참가하고 있는데 경기대회 종목과 규칙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참가 종목 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인터스테노 속기경기대회 채점기준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은데 매년 인터스테노 참가 시 경기대회에 관한 의문점을 문의하여 확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총회에서 중국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2014년 중앙위원회와 IPRS 개최 제안을 하고 이를 유치한 점을 볼 때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인터스테노 회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인터스테노 내에서 중국 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한중 간의 우호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13 인터스테노 벨기에 겐트 참가 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이 태 범

국내 경기대회에서의 선발전 합격과 대망의 인터스테노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느 때부터인가 글로벌, 지구촌이라는 말이 익숙하듯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 오래다. 손 안에 쥔 휴대폰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야구선수의 경기를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름만 겨우 알 정도의 먼 나라에서 PSY의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얻는 것이 지금의 세계다. 그만큼 지금은 글로벌한 세상이다.

그 글로벌한 세상에 나도 이제 뛰어드는 계기가 생겼다. 바로 국제속기경기대회 인터스테노다. 49th Intersteno congress 2013 Ghent!

국회에 들어오기 전 자막방송협회에 근무했던 나는 2009년과 2011년에 예선도 치르지 못하고 인터스테노를 지켜보기만 했었다. 한창 국회에 꿈을 두고 있던 나에게 인터스테노 참가는 사치와도 같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열심히 준비하자 마음먹고 시험 날짜가 오기만을 기다렸고 그 결과 운 좋게도 벨기에 겐트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출국 날짜는 7월 11일.

그러나 들뜬 기분도 잠시, 국회는 너무나도 분주했다. 아직 대회까지 3개월이 남아 있었지만 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4월 임시회는 끝날 줄 모르고 밀리만 가는 회의록,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추경예산까지 편성되어 5월에도 추경 관련 회의의 연속이었다. 인터스테노는 생각할 틈도 없이 추경과 속기세미나로 5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바로 찾아온 6월 임시회. 그러나 6월 임시회도 마찬가지였다. 경험 많은 선배님들도 유난히 힘든 한 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국회 의정기록과의 6월은 바쁘고 또 바빴다. 틈틈이 속기 연습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내 자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자명했다. 그래도 어떡하랴, 나에게는 조직의 일이 먼저이니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바쁜 6월 임시회를 마치고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국내대회 결과 발표 이후 유희연 단장님을 비롯해 백순정 선배님, 정향인 선배님과 인터스테노 일정에 대한 회동도 잦았다. 사실 그때 회동에 참석했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선배님들의 말씀들이 마냥 처음 듣는 외국어같이 느껴지면서 머리가 복잡하기만 했다. 외국어로 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영어도 아닌 것이 사람 이름인지 일반 명사인지도 헷갈리는 단어들…… 역시 선배님들은 대단하시다, 대회 참가에 대한 모든 것을 빈틈없이 해내셨으니까.

이역만리 먼 나라의 낯선 풍경

드디어 7월 11일 우리 한국 대표단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장장 11시간 30분의 힘겨운 비행을 마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했다. 유럽의 첫인상은 참 낯설었다. 전에 중국에 한번 갔을 때는 그래도 같은 아시아권이고 한국 관광객도 많이 보여서 친근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생전 이리도 많은 서양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적이 없었던 내게는 참 새로운 모습들의 연속이었다.

날씨부터 나를 압도했다. 한여름에 출발했기 때문에 나는 반팔 티셔츠 한 장만 입고 비행기를 탔는데 에어컨 바람에 그만 감기가 걸려 버렸다. 가뜩이나 감기 걸린 나에게 북유럽의 여름은 참 추웠다.

암스테르담 공항 앞에서 각오를 다지는 단체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한국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살펴본 네덜란드의 거리는 아주 깔끔했는데 도심인데도 불구하고 한산한 모습이다. 자전거도로도 잘되어 있고 자동차도 많지 않다. 선진국답게 운전자들은 보행자들을 먼저 배려한다. 보행자만 보이면 무조건 서서 먼저 지나가라고 손짓하는 모습이 교통지옥인 서울에 사는 내게는 신기하기만 했다.

벨기에로 이동하기 전에 식사를 하기 위해 '한국관'이라는 식당에 들렀는데 의외로 주인은 아랍인이다. 유럽에서 먹은 첫 식사는 된장찌개, 앞으로 열흘간 한국 음식은 구경도 못 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쓱싹쓱싹 밥그릇을 비웠다.

이제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벨기에 겐트로 가는 일만 남았다. 가는 길에 창밖을 보니 저 멀리 해가 보였다. 그런데 일행 중 어느 분께서 저기 달이 떠 있다고 하셔서 잠시 동안 우리 일행은 웃음꽃을 피웠다. 오후 8시 30분이니 당연히 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시간은 오후 8시가 넘었지만 정말 대낮처럼 밝다. 그런데 그 때문에 나는 시차 적응이 안 돼 일정 내내 매우 힘들었다. 벨기에는 새벽 5시만 돼도 환해지고 밤 11시에도 완전한 어둠이 되지 않았다. 지금이 여름이라 그렇다는데 벨기에 사람들은 여름에 참 힘들 것 같다.

가이드의 말을 빌리면 벨기에는 우리나라의 전라도 면적 정도의 매우 작은 나라인데 특히 겐트는 반나절이면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도시라고 한다. 벨기에 북부권은 네덜란드어, 남부권은 프랑스어를 쓰는데 겐트는 프랑스어권 지역이다. 영어도 어려운데 프랑스어라니…… 스마트폰 번역기야, 너만 믿는다.

저녁 10시쯤 우리의 일정을 함께할 호텔에 도착했다. 이름이 'NH피이터 호텔'인데 농협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이 사진은 밤 10시에 찍은 호텔 앞 거리다. 겐트의 거리는 정말 한산했는데 치안이 다른 곳에 비해 좋다고 하는데도 사람 한 명, 자동차 한 대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술집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여기 사람들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걸까. 아무튼 우리는 밖에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첫 밤을 보냈다.

국제기구의 집합소 브뤼셀

본격적인 인터스테노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행이 찾은 곳은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한국스테노 전시팀을 제외한 우리 일행은 모두 브뤼셀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겐트에서 차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이 도시는 고풍스러운 옛 건물들이 다수인

겐트보다는 현대식 건물들이 많이 보이고 사람들도 훨씬 많다. 거리는 전용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와 배낭을 짊어진 관광객들로 붐빈다.

가는 길에 재밌는 사람을 보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는 자동차 앞에 가서 저글링쇼를 보여주고 돈을 받는 거리의 광대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고 결국 신호가 바뀌어서 그는 허탈하게 인도로 뛰어갈 수밖에 없었다.

브뤼셀에는 볼거리가 참 많다고 한다. 고풍스러운 대형 성당들, 파리의 개선문을 닮은 엄청나게 큰 조형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신기하고 다양한 건물들과 상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브뤼셀 중심부에 있는 레오폴드 공원을 가로질러 미술박물관에 들렀다. 평소 그림에 별 관심이 없는 나이지만 이곳에 전시된 그림들은 정말 웅장했다. 3층 높이의 건물 벽면을 가득 메울 정도로 큰 그림들이 많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비슷한 느낌의 그림들이 수도 없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림을 잘 모르는 내가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경이로워 보였다.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일행은 사진을 많이 찍었다. 다행히도 박물관 안에는 방문객이 우리뿐이었다.

브뤼셀의 명물이라는 홍합탕을 먹기 위해 시내로 이동했는데 이곳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 벨기에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한다. 브뤼셀 주민 4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브뤼셀이 정치, 외교,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지라 그렇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소매치기가 많아서 우리는 각별히 주의하며 이동했다. 곳곳에 자리한 초콜릿 상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서둘러 이동했다. 사람이 워낙 많아서 자칫 일행을 놓치기라도 하면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브뤼셀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랑플라스 광장. 이곳에서 와플을 먹으며 야경을 즐긴다는 관광객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가 보니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 와플 하나 먹으려면 줄서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아무튼 광장을 둘러싼 많은 건물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시간이 발목을 잡았다.

그 유명하다는 오줌싸개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옆에 위치한 나름 유명해 보이는 와플도

먹어 봤다. 포크가 하나 모자라서 "원 모어 포크"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보던 점원이 생각난다. "포올크?"라고 물으면서 짓던 점원의 웃음이 왠지 비웃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나는 R 발음을 최대한 굴리기 시작했다. ^^;

오프닝 세리머니

다음날 본격적인 인터스테노 일정의 시작이다. 행사 장소인 겐트 대학은 겐트 안에서도 여러 곳에 단과대학별로 다르게 위치해 있는데 그 중 Kantienberg라는 곳에서 개막식이 열린다.

첫날이라 대회 운영진들의 회의인 council meeting이 먼저 열렸다. 이곳에서는 인터스테노 회원국들의 대표들이 모여 일정과 행사 등을 상의한다. 나는 선수 대표이므로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잠시 들러본 meeting의 분위기는 매우 엄숙했고 우리 팀은 통역사를 통해 분주히 회의 내용을 체크했다.

우연히 터키 속기사와 밖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IPRS 멤버, 즉 의회속기사라고 했다. 반가운 마음에 몇 마디 나눴는데 터키도 영어권이 아니어서인지 발음도 한국식 발음과 비슷해서 짧은 영어 실력이지만 대화가 잘 통했다. 터키 국회에서 일한 지는 20년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는 수필속기 한 부문에서 입상을 했다. 우리나라는 리얼타임 한 부문에만 참가하지만 다른 나라는 나이와 경력 등을 따지지 않고 많은 부문에 참가한다.

이제 대망의 오프닝 세리머니, 개회식이 치러지는 UFO UGent 대학으로 이동했다. 역시 개회식이다. 세계 각국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축제 분위기를 이루었다. 재즈 공연과 난타 공연 등 볼거리 많은 개회식이었다. 유회연 단장님도 태극기를 휘날리며 무대에 올라 짧은 소감을 전하셨다.

개회식 후 처음으로 겐트 시내를 방문해 보기로 했다. 겐트는 작은 도시지만 시내는 정말 화려하다. 곳곳에 쇼핑센터와 음식점, 초콜릿 상점들이 즐비하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고풍스러운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모든 것이 신기해 보이고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의 멋진 신세계다.

벨기에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참 많겠지만 그중 색다른 몇 개를 꼽자면 화장실이다. 인도에 남성용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있는데 가림막이 없이 소변기만 있다. 대략 이런 모습이다. ^^;

그리고 또 하나는 시내의 도로인데 돌멩이가 도로에 박혀 있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걷기가 참 힘들다. 하이힐 신은 여성들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도로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아마 이 도로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고딕 양식의 건물을 허물지 않는 것처럼 옛것을 보존하려는 이유이리라.

시내에는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늦은 결혼을 하는 신부를 위해서 친구들이 같이 이벤트를 해 주던 모습이었는데 우리 일행 중 김병수 선생님도 사진을 찍었다.

이날은 아주 따뜻하고 청명한 날씨였는데 시내 중심에 자리한 잔디에는 수영복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서울은 엄청난 폭우가 며칠 동안 계속돼 침수 피해가 많다는데 이곳의 날씨는 완전 정반대다.

또 하나 신기한 게 이곳 겐트에는 시내버스가 없다. 트램이라는 전차가 다니는데 시내에는 길 한가운데에 트램 레일이 있다. 레일이 도로에 박혀 있어 인도와 레일의 구분이 가지 않는데 트램이 지나가도 사람들은 피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닌다. 자전거와 보행자, 트램이 뒤섞여 묘한 길거리 풍경을 이루는데 우리나라라면 고성이 오갈 장면이 많이 눈에 띄었다.

트램을 타고 숙소에 가기로 하고 티켓 발권을 위해 미리 식당에서 잔돈을 바꿨다. 전날 한국스

테노팀이 트램 티켓을 사는데 발권기에서 잔돈이 안 나와 애를 먹었다고 한다. 해서 잔돈을 미리 준비해 갔는데 트램을 기다리는데 옆에서 한 외국 관광객이 발권기에 지폐를 넣고 잔돈이 안 나와서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다.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 ^^

대망의 리얼타임 속기

드디어 대회 당일이다. 우리가 출전하는 리얼타임 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늦게 시험이 치러지는데 시험 방식은 조금 복잡하다. 국내 속기대회 방식과 마찬가지로 150자 논설체로 시작해서 1분마다 20자의 속도만큼 빨라지면서 마지막 7분대에는 290자로 끝이 난다. 하지만 국내 채점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중심단어라는 것이 있는데 틀렸을 경우에는 4점을 실점하게 된다. 오자 1자, 첨자 3자가 1실점인 걸 감안할 때 중요단어를 못 칠 경우에는 타격이 크다.

중요단어란 예를 들어 '조세피난처'를 쳐야 되는데 조세XX처, 조세피난X, XXXXX 이렇게 쳤을 경우에는 모두 실점 4점이 된다. 다만 그 중요단어가 어떤 것인지 참가자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단어를 빠뜨리지 않고 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현재의 낭독 속도에서 어느 정도 많이 실점했을 때, 예를 들면 4분대 230자에서 대략 7~8자를 통으로 못 쳤다면 내 최종 점수가 가장 높더라도 내 등급은 5등급이 된다. 마지막까지 통으로 놓치는 일 없이 꾸준히 잘 친 사람은 8등급이 된다. 최종 실점보다는 등급이 높아야 된다는 말이다. 이 기준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다음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이 기준들에 대비해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시험은 각 나라별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국내 대회와 다른 점은 없었지만 그래도 막상 시험을 볼 때는 떨렸다. 8분이라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끝나고 나서 땀에 흠뻑 젖었다. 인터스테노 심판은 외국인이라서 질문하기도 그렇고 기계 설치나 다른 부분도 절대 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나 기계 설치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연습문을 여러 번 연습하고 본시험 낭독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찰나 오타가 하나 생겼다. 시작한 지 한 3분 정도였기 때문에 그 한 글자를 버리기가 아쉬웠다. 그런데 그게 실수, 그 한 글자를 고치려다 뒤에 나오는 단어를 통으로 못 치고 말았다. 그때부터 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나의 자만심이었고 그래서 아쉬움

이 많이 남았다. 다음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은 꼭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결과야 어찌 됐든 시험이 끝난 후에 우리 모두는 시원섭섭했다. 그러나 다들 제 실력 발휘를 못했다는 회한과 함께 우리 참가자들은 서로 말이 없었다. 흔하게 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대회 결과는 폐막식에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방문

벨기에 브뤼셀은 유럽의 심장이라 불린다. 바로 브뤼셀이 정치, 경제, 외교,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지이기 때문인데 이곳에는 EU본부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격인 각종 위원회가 이곳에서 열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세계관세기구 본부도 이곳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다. 벨기에 하면 베네룩스 3국, 축구 잘하는 나라, 초콜릿, 맥주 정도만 알았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유럽의 정치적 중심 국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우리 일행도 EU본부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입장할 때부터 삼엄한 검문검색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본부 안은 출입제한구역이 대다수라 많이 둘러볼 수는 없었는데 하필 본회의장이 공사 중이란다. 그래서 EU본부 가이드의 설명만 들었는데 영어로 설명하니 참 난감하기만 했다.

EU본부에도 국회 방문자센터와 같은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전시관이 있는데 유럽의 역사, EU가 만들어진 배경, 유럽을 하나로 잇는 그들만의 문화가 자세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배정된 시간이 짧아 많이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브뤼셀은 한번쯤 다시 올 만한 곳이다. 관광명소도 많고 그리고 특히 그랑플라스 광장에서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축제는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는데 꼭 다시 와서 제대로 관광하고 싶다.

IPRS(Intersteno Parliamentary Reports' Section)

세계 각국의 의회, 법원에는 속기사가 있다. 어느 나라도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는 소홀할 수 없다. IPRS란 의회 · 법원 속기사들의 모임인데 이번 인터스테노 총회 IPRS 회의에 나도 참가할 수 있었다.

신기했던 것은 다른 나라 의회도 우리나라 국회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할 때 검

는 진통은 물론 여야 간 대립의 현장도 비슷하다. 우리 속기사는 아무래도 회의 때 동시다발적으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려움을 느끼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 상임위원회가 새벽에 끝나는 일이 많은 점도 비슷하고 의원의 명백한 발언 실수를 속기사가 교정해야 되나, 발언한 대로 속기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얘기할 때는 너무나 놀라웠다. 그 외에도 비슷한 점이 아주 많아서 속기사라는 직업은 역시 만국 공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스테노는 매년 중앙위원회가 열리고 2년마다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 때는 속기경기대회가 열린다. 나는 경기대회 선수 자격으로 왔지만 다른 나라 속기사들의 얘기를 들은 셈이니 정말 행운이었다.

아쉬운 시상식, 아듀 겐트

어느새 인터스테노의 마지막 공식 일정인 시상식이 열리는 7월 18일이다.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내일 네덜란드를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제야 시차 적응을 했는데 가야 한다니 아쉽기만 하다.

개회식을 했던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진행되는데 퀼트를 불며 등장하는 악사들이 시상식의 문을 열었다. 대회 임원진들의 연설이 먼저 진행되고 개회식과는 다르게 특별한 행사 없이 바로 시상이 시작됐다.

JUNIORS, SENIORS, PUPILS 3개 그룹별로 7개 부문 시상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참가한 리얼타임 부문은 후반부에 시상될 예정이다. 사실 시상식 이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부문이 있는지 몰랐다. 2벌식 키보드 속기도 있고 수필속기, 컴퓨터속기 외 잘 모르는 부문도 많았다. 시상이 진행될수록 중복 수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여러 부문에 중복 참가해 메달을 5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이윽고 우리가 출전한 리얼타임 부문이 시작됐다. 1등은 중국의 왕 루이, 이미 지난 인터스테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속기사이다. 아쉽게도 우리들은 결국 세 명 다 수상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초반에 여러 글자를 빠뜨리는 바람에 낮은 등급에서 실점하여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못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실망이 크다. 이제 다음 기회는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비록 나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수상자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진심을 다해 축하해 주었다. 수상하는 사람이 속한 나라 쪽에서는 연신 휘파람이 울렸고 이게 축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중국과 체코 두 나라가 메달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수상한 부문에 대한 시험 기준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두 나라는 한 부문에서 1·2·3등을 모두 수상하는가 하면 한 선수가 4~5개씩의 메달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속기의 빈익빈 부익부라니……

장장 3시간에 걸친 시상식이 끝나고 이제는 송별 만찬에 참석해야 한다. 겐트를 벗어나 시골길을 달려 한적한 곳에 자리한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영화에서만 보던 넓고 푸른 정원이 뒷마당에 있는 레스토랑, 이런 건 정말 영화에서만 보았었는데 참 신기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벨기에 꼬마 숙녀가 우리 일행에게 관심이 있었는지 휴대폰으로 '강남스타일' 노래를 틀면서 장난을 걸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온 건 어떻게 알았는지 '강남스타일' 춤을 추면서 연신 장난을 친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에 많이 알려졌다는 생각에 참 신기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자리로 오더니 휴대폰을 내민다. 보니까 번역기 어플을 써서 한국어 인사를 묻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제 교류가 되다니…… ^^ 특히 윤여일 군에게 관심이 많았다.

식사 후반부에는 댄스타임! 기억도 잘 안 나는 옛날 팝송이 흘러나오자 조명이 무도장 분위기로 바뀌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색깔을 살려서 춤을 춘다. 자유롭고 활기차 보이는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자유분방하다는 말이 딱인 것 같다.

중간에 갑자기 익숙한 음악이 나왔는데 '강남스타일'이다. 그전까지는 심심한 올드 댄스음악이었는데 역시 PSY 형님은 최고다. 여기가 유럽인지 한국인지 분위기를 완전히 클럽으로 만들어 버렸다. 춤도 추고 와인도 마시고 그렇게 우리 일행은 겐트에서의 마지막 밤을 즐겼다.

겐트를 떠나며

내 직업은 속기사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속기만 배운 것은 아니다. 비행기로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날아 다른 눈동자,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았다. 단순하게만 세상을 보았던 내 눈을 뜨게 해 주었고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바꿔 놓았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에필로그

이번 일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정 내내 저와 같은 방을 쓰셨던 이경식 부회장님, 주무시다가 저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셨죠. ^^; 그리고 보기만 해도 '헉' 소리 나오는 영어 사이트를 열심히 모니터하시면서 일정도 잡으시고 인터스테노 관계자와 연락하시고 여행사 일정도 챙기셨던 유회연 단장님, 백순정 선배님, 정향인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시회 때문에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 많으셨던 한국스테노의 이대선 실장님, 김종열 과장님, 저희 팀이 언어의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통역사의 역할을 해 주신 김한우 교수님, 김병수 선생님, 그리고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점동 이사님, 손석련 이사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단 김봉철, 윤여일 군과 함께 2013년 벨기에의 여름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가게 될 속기사 선후배님들은 시험 기준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셔서 후회 없는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인터스테노 총회를 우리나라에서도 꼭 개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벡키에 겐트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국어 정책 수행 현황 연구

안 기 철

– 편집자 주 –

'국어 정책'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말과 글에 대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정의됩니다. 즉 우리말과 한글의 보전 및 공용어 · 표준어 규정에서부터 외국어의 순화, 남북 언어의 통일, 국어 정보화, 한국어의 세계화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정책을 뜻합니다.

Ⅰ. 서 론

임진왜란을 맞아 피란길에 오른 선조는 언문(諺文 · 한글)으로 교서(敎書)를 내린다. 연이은 패전과 지방 수령의 도주 등으로 국가의 존망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그동안 천대받던 노비와 백성들이 의병으로 나서 전공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에 선조가 민심을 다독이고 백성들의 충정을 독려하기 위해 1593년 9월 '그들의 말'인 언문으로 교서를 내린 것이다. "진실로 손에 침을 바르고 일어나서 우리 조종의 남아 있는 은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내 관작을 아끼지 않겠다. 그 결과 살아서는 아름다운 칭송을 받게 되고 자손까지도 그 은택이 유전되리니 이 어찌 아름답다 하지 않을쏘냐?"[주1] 왕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그들이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150년이 지난 때의 일이다. 본래 교서는 한문이 원칙이었다. 간혹 언문 번역본도 함께 반포한 경우가 있지만 교서 전체를 언문으로 반포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단일민족으로서의 언어적 정체성을 지켜 왔다. 우리말과 한자의 결합이 오래도록 유지되었는바, 과거사를 보면 오래 전부터 국가가 어문 정책을 관장해 왔음을 알 수 있

1) 정주리 · 시정곤, "조선언문실록", 고즈윈, 2011.
이 책에 인용된 언문으로 된 교서의 내용이다.

다. 신라 경덕왕 때 지명(地名)의 한자식 개정 작업과 고려 사역원의 역관(譯官) 양성 등이 그것이다. 또한 훈민정음 반포는 한글과 관련한 최초의 국어 정책이다.[2] 선조의 언문 교서 사례는 국어 정책에 관한 역사의 한 장면이다. 세종조의 열의가 사라진 이래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고서야 언문이 백성과 직접 소통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 전제 왕권 시대에도 어문 정책이 쉽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1894년 고종 때에 이르러 갑오개혁으로 법률과 칙령은 모두 한글로 으뜸을 삼고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 혼용으로 하라는 칙령을 내리기에 이른다.[3]

법치주의가 확립된 오늘날, 법에 의한 지배와 국민에 의한 통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가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따라서 법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1,210개의 법률 및 4,231개의 영과 규칙이 있다.[4] 이에 대하여 우리 법령은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어문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 왔다.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어, 번역 투, 권위적 용어 사용 등의 문제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법제처 및 국회의 법률 정비 작업은 우리말과 글의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소통 증진이라는 국어 정책 수행 노력의 일환으로서, 일차적으로는 입법 실무자가 책상 위에서 법문과 자구를 다듬는 노력에 지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법 테두리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국민 모두를 향한 의식적이고 국가적인 노력인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국어 정책 수행 현황을 점검해 봄으로써 입법 실무자가 법률 입안과 심사에 임함에 있어서 국어 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고 또한 이러한 검토가 국어 정책 수행에 환류(feed-back)되어 업무의 통일성 ·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친화적 입법 문화를 조성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 보고서", 2009, 4쪽.
3) 안병희, "국어 문제와 국어 정책", "21세기의 국어 정책", 국립국어원 · 한국어문학회, 2000, 2쪽.
4) 2011년 12월 5일 현재 법제처 누리집, 법령통계(http://www.moleg.go.kr/lawinfo/status/statusReport)

Ⅱ. 국어 정책과 입법 과정 개관

1. 국어 정책의 의의

언어는 국가 민족의 정체성의 핵심이며 한 나라의 국어의 존엄성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다.[주5]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민족적 특성(단일민족 또는 다민족)에 따라 그에 맞는 언어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의 확산으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언어 정책이 고유한 언어 및 문화 주체성의 유지, 발전 및 확산뿐만 아니라 다문화주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미래학자들은 지구상 6,700여 개 언어 중에 21세기 안에 대다수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획일화로 정치,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의 언어에 힘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말을 지키지 못하면 완전히 소멸되진 않더라도 집에서만 쓰는 비공식 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주6]

가. 국어 정책의 개념과 내용

'국어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그 나라에서 사용되는 말과 글에 대하여 바람직한 미래를 기대하면서 실시하는 정책'이라고 정의된다.[주7] 곧 말과 글에 대한 국가적인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어 정책이 다뤄야 하는 분야는 '말'에 관한 것은 공용어 · 표준어 규정, 외국어의 순화, 남북 언어의 통일 등과 같은 정책이고, '글'에 관한 것은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와 그 운용법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분야에 속한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복잡화로 인하여 국어 정책의 분야와 과제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주5)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 보고서", 2009, 9쪽.
주6) "한국어, 집에서만 쓰는 언어 될 수도", 매일경제, 2011. 1. 19, A34면
주7)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결과 보고서", 2009, 3쪽.

21세기에 언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어기본법은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라고 천명하며 2005년 제정되어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할 것과 어문 규범의 통일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1차 국어발전기본계획(2007-2011)에 제시된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어기본법의 이념 구현과 실효성 제고, 사회통합적 언어 복지, 다원주의 언어규범 정립,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국어 정보화, 한국어의 세계화'이다. 국어 정책 10대 추진 과제 중 이 글의 논지가 되는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 소통 증진'의 내용으로서는 '국어 순화, 대중매체 언어 개선, 전문용어 정비 · 표준화, 공공언어 개선, 교과서 · 법령문 감수 제도 정착' 등이 있다.

나. 법규정의 특성과 국어 정책적 중요성

규범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준인 법은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에 따르면 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법적 안정성'이란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이 명확해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든다.[주8] 이는 사회 일반에서 법규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쉽고 예측과 준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함을 뜻한다.

법이 국가 사회를 규율한다고 하나 법치 민주 국가에서 법의 주인도 국민이며 국민의 법적 관계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입법 실무자는 이러한 법을 만들기 위하여 어문 규범을 준수하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명확한 문장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곧 국어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와 맞닿는 작업으로서 이러한 법규정에 대한 국어 정책 수행의 효과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주8)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다. 법적 안정성이란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법이 명확하여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고, 일반인의 의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분쟁 조절과 사회 유지'라는 '법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고 또한 국민이 법을 보다 잘 지키도록 하는 지름길이 된다.

국가적 정책으로서 국어 정책을 선도하고 솔선해야 할 곳은 당연히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이 대내외적으로 행하는 각종 발표, 보도, 판결, 공문 작성 등의 행위 등 대체로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언어'를 특히 '공공언어(public language)'라고 한다. 법규정은 대표적인 공공언어로서[주9]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있어서 국어 정책의 추진 과제인 공공언어 개선 작업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2. 입법 과정과 참여자

입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 · 개정하는 것으로서[주10] 입법 과정이란 헌법에서 부여한 국회의 권능인 입법권 수행 과정, 구체적으로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되고 의결된 후 공포되는 전 과정이다.[주11]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특징에 따라 의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각 관계 실무자를 통해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주12] 입법 과정은 입법 실무자에게 있어서 국어 정책의 정책 집행 과정(policy implementation process)이 되는 것이다.

〈입법 과정도 생략〉[주13]

주9) 장후석 외 2인,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국립국어원, 2010, 5쪽.
주10) 안병옥, "국회법", 초이스 디자인, 2010, 32쪽.
주11) 임종훈 · 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4쪽.
주12)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안하는 경우에는 헌법에서 사용한 용어대로 '정부 제출'이라 하고 의원이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사용한 용어대로 '의원 발의'라고 하여 '제출'과 '발의'를 구분하여 쓰고 있다.
주13) 국회 누리집, 온라인 입법 교육 참조.(http://www.assembly.go.kr/renew10/apl/capp/civil_edu/edu_online.jsp)

입법 과정은 '법률안 발의(제출)', '위원회 심사', '체계 · 자구 심사' 단계로 구분되며 이에 참여하여 법문의 입안이나 수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공무원 등 '입법 참여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입법 활동의 주체인 의원은 언제든지 발언을 통하여 법의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자구나 형식 등에 대한 실무적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의원은 입법 과정의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입법 참여자이다.

○ 법률안 발의(제출) 단계 — 이 단계는 우리말 사용이나 어문 규범 등의 준수가 처음 이루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의원 발의 입법의 경우에는 각 의원실의 보좌관 등 보좌직원, 각 정당의 정책연구위원 등 관계자가 입안을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 법제실의 법제관이 참여하게 되고, 정부 제출 입법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관서의 법규 담당 또는 소속 국 · 실의 실무자가 입안하며, 법제처의 종합 심사 단계에서 법제처 법제관이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한다. 법률안은 완성된 법률의 형식과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 변경 없이 제출한 내용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를 '원안 통과'라고 하며[주14] 따라서 법률안 입안은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위원회 심사 단계 — 법률안이 제출되면 소관하는 위원회로 회부되어 각 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이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내용 검토에 참여한다. 국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가 각각 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게 되는데 이때 법문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표기 방식이 나타난다.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는 정부 및 산하 기관 · 단체 등의 담당자도 출석케 할 수 있다.

○ 체계 · 자구 심사 단계 —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체 소관 법률안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회부되어 온 법률안의 체계 · 자구에 대하여 심사한다. 우리말 사용이나 전문용어 등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일지라도 위원회별로 또는 입안자별로 약간씩 표기에 차이가 있

주14) 국회법 제97조는 본회의 의결 후의 구제책으로서 의장 또는 위원회에 서로 지속되는 조항 · 자구 · 숫자 등에 대한 의안의 정리를 위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는 부분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여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사위 소속의 전문위원,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법사위의 체계 · 자구 심사권은 어디까지나 법의 체계 · 형식과 자구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고, 법률안의 내용까지 심사할 수는 없으나 헌법이나 다른 법과 상충 · 저촉될 때에는 법체계의 통일 · 조화를 위하여 체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주15] 이러한 국회 입법 과정 각 단계에서 국어 전문가의 공식적인 감수 절차는 없다. 입법 참여자의 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입안이 이루어지며 국어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하거나 국어와 관련한 자료 및 각종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문의[주16] 등을 활용하고 있다.

Ⅲ. 입법 과정의 국어 정책 수행 현황

1. 법령 정비 현황

국회는 2003년 법제실 주도로 법률 표준화 사업이 추진되어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을 2003년 9월 9일 국회사무처예규 제10호로 제정하고 또한 같은 시기에 국회사무처예규 제11호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제정하여 법률안의 구성 형식의 통일 · 정형화를 도모하고 있다.[주17] 국회에서는 제정 법률안은 물론이고 일반 법률안 개정 시에나 법제처에서 제출하는 정비 대상 법률안 개정 시에도 이러한 두 가지 국회 표준화 기준과 그에 따른 사례집 등을 원칙으로 입법 업무에 적용하고 있다.

주15) 안병옥, "국회법", 호이스 디자인, 2010, 224쪽.
이러한 법사위의 체계 · 자구 심사권 때문에 법사위는 '국회의 상원'이라 불린다.

주16)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 '온라인 가나다', 한글학회의 '한글사랑방', 부산대학교와 (주)사라인포테크의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 등.

주17)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나오는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가 예산의 절감, 법률 상호간 체계성 제고, 규제완화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의 활성화, 최형법정주의 보장 등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총칙 · 실체적 규정 · 보칙 · 벌칙 · 부칙의 순서에 따라 표준 입법 모델을 마련한다. 향후 표준 입법 모델로 선정된 각 사례는 각각 추가 · 보완한다."

정부의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에서는 2000년부터 추진해 오던 '법률 한글화 사업'을 확대하여 2006년부터 법률의 용어를 순화하고 그 문장과 체계를 우리 어문 규정에 맞게 다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현행 법률 대부분에 해당하는 977건의 정비 대상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335건의 법률안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2,500여 건의 하위법령(법제처 심사 대상이 아닌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 소관 법령은 제외)이 알기 쉽게 정비되었다. 남아 있는 하위법령 800여 건에 대하여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주18]

국립국어원에서는 '전문용어의 국어화 사업'으로 각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에서 온 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자료집을 발간하여 보급하는 순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1년 현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으로 3만여 항목의 전문용어를 수집·정리하여 법령 정비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타 학술 용어, 정보 통신 용어 등 현재 약 220만 항목을 수집 중에 있으며 이를 정비하여 향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등재하여 온라인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주19]

2.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하여 국어 정책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이다. 이 기준은 '법률 용어 사용 및 표현의 원칙과 기준'을 조문화하여 예규로 규정한 것이다. 예시문은 색인화하여 규정의 취지와 사용자의 활용 편의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으며 2010년 12월 27일 전부개정(201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예시문 생략〉

○ 법률안의 표준화에 관한 기본원칙 –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 준수.

주18)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2011.
주19) 국립국어원, "국어원 20주년 성과와 나아갈 길", 2011.

○ 법률 용어의 한글화에 관한 기준 – 법률안의 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 축약된 한자어는 풀어 씀.
○ 법문 표현의 표준화에 관한 기준 – 법문 표현은 어문 규정 준수. 관행화된 법문 표현은 예외 인정. 같거나 비슷한 법문 표현은 통일.
○ 문장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 법률 제명 사용에 관한 기준

띄어쓰기 준수. 명사만인 경우 가독성을 고려하여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씀. 다만, 조직 · 기구 · 단체 · 기금 · 특별회계 등 특정한 명사구가 하나의 실체를 갖는 명칭인 경우에는 8음절 이상인 경우라도 붙여 씀. 다른 법률의 제명을 인용할 경우 제명은 한글로 쓰고 제명의 첫 글자 앞과 끝 글자의 뒤에 '낫표(「 」)'를 붙임.

3. 법률안 심사 사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86조) 본회의는 심사보고에 대한 의결 위주의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가 국어 정책적 검토의 마지막 단계이며 각 위원회가 회부한 법률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례 내용 생략〉

Ⅳ. 입법 과정의 국어 정책 강화 방안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국어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 곤란하다. 정책 대상이 되는 법문 개개의 수정 사항에 대한 평가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분석을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로서 '경제적 기대 효과 연구 모형'이 최근에 연구된 바 있지만[주20] 정부에서도 국가기관의 각종 사업 명칭과 공기관 명칭에 대한 외국어 · 외래어

주20) 장후석 외 2인,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국립국어원, 2010, 94쪽.

남용 등의 지적이 있자 이러한 공공언어 개선 정책 추진에 관하여 "정책 담당자들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과, 어문 정책 담당 부서의 협력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전문용어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주21]

1. 입법 참여자 교육

법제처나 국회의 경우에 모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법률 용어의 표준화 기준'을 원칙으로 삼고 기타 어문 규범 등을 참고하면서 입안 작업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입법 참여자의 능력이 국어 정책 수행에 있어서 변수가 된다. 결국 개인적인 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 이를 통한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일반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이 시행하는 '국어 전문 교육 과정'(35시간)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체로 수강자 입장에서는 공무원 인사 제도상 필요한 교육 점수 확보 차원에서 이수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정도의 일시적인 학습 효과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입법 실무 관련성과 지속적 능력 향상이 가능한 맞춤식 교육 과정이 개발 · 제공되어야 하겠다.

의원 보좌직원인 경우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교육이 강제되지는 않으나 국회 의정연수원은 입법 업무에 관련되는 모든 교육을 의원 보좌직원에게도 개방하고 있어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든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특별한 교육 유인책(incentive)이 있지 않는 한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주21) 문화체육관광부, "21세기 새로운 어문 정책의 방향", 2010, 14-16쪽.

2. 국어 전문가 지원

2010년 4월 한 달간 개최된 제289회 국회의 경우 본회의 통과 법률안 수는 63건이지만 실제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업무량을 보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이외에도 철회가 3건, 폐기가 144건이나 된다.[주22] 모두 210건으로서 16개의 상임위원회당 평균 13건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안만 계산한 것일 뿐 예산안 및 결산, 청원, 각종 동의안 · 결의안, 인사청문안 등의 검토 업무는 제외한 숫자이다. 위원회당 평균 10여 인의 인력인 현실에서 국어 정책적 검토는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

국어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두되(제10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이것은 이미 특정 업무를 맡고 있는 이에게 부수적으로 국어책임관 업무를 추가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업무를 총괄하는 이와 그 업무의 내용은 어떠한 것이라는 규정만 있고 그 업무를 보좌 · 수행하는 하부 조직이나 인력에 대한 위임 또는 구체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립국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행정용어 순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주23] 국회에 있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문을 하는 국어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expert pool system)[주24] 형식으로 운영하면 소수 인력으로도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 국어 전문가를 상근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국어 정책의 실천 의지를 보일 필요도 있다. 법의 자구 하나하나는 법률가에게는 일차적인 법 해석 방법인 문리해석[주25]의 대

주22) 국회사무처, "제289회국회(임시회) 경과보고서", 2010.
주23) 문화체육관광부, "21세기 새로운 어문 정책의 방향", 2010. 7쪽.
주24) 주로 중소기업이나 교육계에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원 요청이 있으면 해당 인력을 연결해 주는 방식이어서 내부 인력을 등록할 경우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주25) 문리 해석(文理解釋)은 법령을 구성하고 있는 자구나 문장의 뜻을 문법 규칙 및 사회 통념에 따라 밝히 확정하는 해석 방법이다. 논리 해석에 대한 개념으로 법해석의 제1단계이다.

상이 되며, 법사위 심사 사례에서 보듯 자구를 조탁하다 보면 법의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표준화 기준의 통일

국회의 표준화 기준인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법제처의 표준화 기준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그리고 한글맞춤법에 정한 원칙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띄어쓰기나 준말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띄어쓰기의 경우 – 관행화된 법문 표현을 용인하고 있다.

▶ 법제처 기준 – '1천만원', '제2조제3항'

▶ 국회 기준 – '1천만원', '제2조제3항'

▶ 한글맞춤법 – '1천만 원', '제2조 제3항'

○ 준말의 경우 – 법제처 기준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습관에 맞게 준말도 허용하여 준말로 된 법문에 대하여는 정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나 국회 기준은 법령용어의 특수성을 들어 준말이 있는 표현의 경우에도 일관성 있게 본딧말로 수정하고 있다.

▶ 법제처 기준 – '-에 대해', '-지 않은'

▶ 국회 기준 – '-에 대하여', '-지 아니한'

현재 법률안이 심사를 마치고 통과될 때에는 국회의 표준화 기준으로 수정되고 있다. 단일한 표준화 기준으로 정리함으로써 행정 낭비를 줄이고 입법에 통일을 기함이 옳다.

V. 결 론

앞에서 법적 안정성 확보와 공공언어로서의 파급 효과를 감안하여 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만들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법은 국어 정책이 추구하는 내용 그대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어문 규범을 준수하며 이해하기 쉬운 법문으로 표현하여야 하는바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과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사례에서 보듯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어 능력이라는 전문성이 매우 필요한 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입법 과정의 국어 정책 수행에 대한 현황 점검을 통하여 입법 과정 참여자에 대한 국어 교육의 내실화 방안과 국어 전문가의 지원 또는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이는 정책 수행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산출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국어 정책 강화의 요구는 국회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국어책임관 지정의 예와 마찬가지로 국어 정책을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라는 당위성 차원에서만 강조한다면 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구체적인 기관형성(institution building) 등의 방법으로 정책 추진에 뒷받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선조가 언문 교서를 내린 때인 1593년은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장시 '비너스와 아도니스'를 쓴 해이며 이후부터 그는 활발한 저작과 극단 활동을 하였다. 당시까지 영국은 지배계급의 프랑스어와 여러 지역어가 혼재하던 시대였다. 셰익스피어가 영어로 쓴 풍부한 어휘와 아름다운 문장은 사람들의 감동에 힘입어 자주 인용되고 많은 관용어를 낳으며 현대 영어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영어를 국민에 잘 소통되는 언어로 만든 것은 그의 문학적 업적 못지않아 우리의 국어 정책에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일찍이 한글학자 최현배는 1951년 집필한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 말이 있으며, 겨레의 사는 곳에 겨레말이 산다. 겨레말은 실로 겨레의 정신이요 생명이다. 겨레말의 소리가 울리는 곳에는 그 겨레의 정신이 약동하며, 겨레말이 번지는 곳에는 그 겨레의 생명이

번진다. 그리하여 겨레와 겨레말과는 흥망을 같이 하며, 성쇠를 같이 한다."고 하였다.[주261] 국어 위기론이 제기되는 시기에 국민에 잘 소통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좋은 국어 정책이 되며 우리말과 글을 살리는 길이다.

※ 연구 내용은 국립국어원 수행과제를 발췌한 것이며 지면 관계상 예시문 및 사례는 생략하였습니다.

주261 허인김, "한국 현대 국어 정책 연구", 1993, 27쪽, 재인용.

제헌국회, 한국 속기의 요람

이 다 교 기자

남상(濫觴)', 배를 띄울 정도의 큰 강물인 양자강도 그 근원은 술잔을 띄울 정도의 작은 물이었다는 뜻으로 모든 사물의 시발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위 단어처럼 지금은 100명이 넘는 국회 의정기록과도 처음 시작했을 때 모습은 어땠을까? 성경에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도 있듯이 비록 처음엔 작은 움직임이었으나 켜켜이 쌓여 가면서 큰 변화를 이루어 냈을 것이다.

이번 《속기계》는 50호 특집호이다. 그런 만큼 국회 의정기록과를 있게 한, 한국에 속기사를 존재하게 한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그로 인해 우리 속기인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후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광복 후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는 시기까지의 현대사를 소개하고, 그 격동기 속에서 태동한 한국 속기사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 현대사 부분은 학술연구물들을 참고하고, 한국 속기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헌국회 때부터 근무하신 선배님들이 남기신 글들을 인용하였다.

격동의 현대사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연합국에게 무조건 항복했다. 민족의 뜨거운 염원이었던 해방은 이렇게 아무 경황없이 맞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내 나라를 세워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해방은 곧 독립이 아니었고 외국 군대 점령이라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과 소련은 어느 쪽도 자국에 비우호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수립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은 해방정국을 가르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다.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의 핵심은 첫째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우선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둘째 임시정부의 수립을 돕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셋째 임시정부와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 아래 미국 · 영국 · 중국 · 소련 4개국 공동으로 5년 동안 신탁통치를 행한 후에 완전한 독립국가로 이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국내에 전달될 때 강대국 신탁통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격렬한 반탁운동을 불러일으켰다.

1946년 5월 8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됨에 따라 한국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전망이 흐려지자 김규식, 여운형 등 중도파는 미군정의 일정한 지원 아래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했다.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미군정이 주도하는 과도정부 수립을 유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좌우합작운동은 이승만 등 극우세력의 공격과 극좌세력의 극단적인 노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설치와 좌익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골몰한 미군정의 이중적 태도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결정은 북한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조만식은 북한 지역에서 일정한 대중적 지지를 얻었지만 그의 반탁 입장은 그를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당수로 있던 조선민주당의 임원 중 공산주의 계열을 제외한 많은 임원이 월남의 길을 택했다. 이후 북한에서는 소련군의 지원 아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위원장 김일성)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제반 사회 · 경제개혁을 수행했다. 무상몰수 · 무상분배와 산업국유화를 원칙으로 한 북한의 경제개혁은 노동자 · 농민의 지위는 향상시켰지만 급진적 개혁의 부작용으로 많은 수의 지주 · 자산가 · 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만들었고, 이들은 남한에서 반공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남한의 우파는 우파대로 1946년 6월 이승만의 소위 '정읍발언'을 계기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운동에 돌입하였다. 게다가 1947년 9월 미국이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을 선포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면서 모스크바삼상회의의 구상은 이로써 사실상 끝이 났다. 유엔은 그해 11월 14일 총회를 열어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결정은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소련이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리는 만무했다. 그러자 유엔은 다시 1948년 2월 26일 소총회를 열어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의하게 되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 소식은 우파를 제외한 다른 정파들의 반대를 불러들였다. 좌파는 물론 김구 같은 민족주의적 우파조차도 단독정부 수립에 완강히 반대했다. 그러나 이미 북한만의 친소정권 수립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남한의 단정 수립은 사실 불가피한 수순이기도 했다. 선거가 확정되자 선거를 방해하려는 좌파의 총공세가 개시되었다. 미군의 특별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전국 곳곳에서 폭동과 소요가 발생했고, 급기야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러한 긴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5·10선거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5·10선거는 제한된 구성원만으로 외국의 감시 속에서 이루어진 반쪽짜리 선거였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회를 구성할 대표를 민주적인 선거 절차에 의해 뽑은 역사상 최초의 선거였다.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할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는 국민 직접선거에 의한 소선거구제를 통해 198명의 의원을 선출하였고, 1948년부터 1950년까지 2년간 6번의 회기를 거쳤다. 1948년 5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이승만을, 부의장으로 신익희를 선출하였다. 6월 23일 제17차 본회의에 헌법안이 상정되었다. 이후 활발한 토론을 거쳤지만 정부 수립이 시급한 시간적 제약 때문에 세 차례 독회를 마치고 7월 12일 제28차 본회의에서 헌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제헌국회 구성된 지 50여일 만인 7월 17일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이 헌법을 서명·공포하였다. 이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부통령으로 이시영을 추대하였다. 이윽고 국회의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8월 4일 의장단 보선을 통해 의장으로 신익희, 부의장으로 김동원과 김약수가 선출되었다. 마침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세계만방에 공포하였다.

제헌국회 의장 「출처 : 국회사1」

이 승 만

신 익 희

제헌국회 의장 「출처 : 국회사1」

申 翼 熙
(1948.5.31 ~ 1948.8.4)

金 東 元
(1948.5.31 ~ 1950.5.30)

金 若 水
(1948.8.4 ~ 1949.7.2)

尹 致 暎
(1949.7.4 ~ 1950.5.30)

제헌국회의사당(중앙청) 「출처 : 국회사1」

제2대 국회 의장 「출처 : 국회사1」

申 翼 熙
(1950.6.19~1954.5.30)

제2대 국회 부의장 「출처 : 국회사1」

張 澤 相
(1950.6.19~1952.5.6)

曺 奉 岩
(1950.6.19~1954.5.30)

金 東 成
(1952.5.8~1952.6.18)

尹 致 暎
(1952.7.10~1954.5.30)

제2대 국회의사당(6.25동란시 경상남도도청 내 무덕전)「출처 : 국회사1」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 한국 속기사

우리말 속기의 탄생 기점은 대개 1908년에 재미교포 박여일 씨가 창안했다는 '조선어속기법'과 1923년 중국 상해에서 김두봉이 '날적말 적기 약기법'을 발표한 때로 삼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한결같이 실용단계의 속기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속기의 효시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후에 제대로 체제를 갖추어 발표된 속기법은 1935년 6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29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조선어속기술강해'라는 주제로 연재된 강준원의 '조선어속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조선에서는 일본속기가 주로 활용되고 있었고, 조선인 속기사 10여 명이 언론기관과 개인이 개업한 속기사무소(서울에 2개소가 있었음)에 종사하고 있었다. 언론기관에는 〈경성일보〉에 박인태 · 강준원, 〈동맹통신〉에 김천한, 〈매일신보〉에 장기태가 근무하고 있었고, 대구 출신인 이용길이 서울에 있는 개인속기사무소에서 근무했었다.

당시 언론사의 편집국에는 '연락부'라는 부서가 있었고, 속기사들은 대개 이 부서에 배속되어 지방 주재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통해 기사를 수신해 속기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 강연속기 · 좌담속기 등의 업무가 많았는데, 녹음기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라 속기사에 대한 대우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의 한국인 속기사 배출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우선 일본어속기를 배우자면 무엇보다도 일본어에 능통해야 했기 때문이다.

해방이 되자 국내 속기인들 간에는 앞으로 개원될 국회의 의정사를 당장 누가 속기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장 속기사를 양성하려 해도 우리말 속기법은 일부 일본어속기사들에 의해 겨우 연구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장기태를 비롯한 박인태 · 강준원 · 이동근 · 김천한 등 일본어속기사들은 제각기 자신이 쓰고 있는 일본어속기법을 기초로 하여 우리말 속기법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1946년 12월 12일에 개원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회의록을 속기로 기록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말 속기법이 실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다. 입법의원은 정원 90

명으로 구성되었고, 의장은 김규식 박사였다. 구미 제국 의회제도의 골격을 그런대로 도입한 입법의원은 이듬해 4월 폐원되기까지 50여 개의 법안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김규식 박사의 의장 피선은 우리 속기사(速記史)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입법의원 사무처에 속기사를 구하라고 강력히 주장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김규식 박사는 미국 유학 시절에 미국속기를 손수 하셨던 분이라 속기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당시만 해도 일반인에게는 '속기' 라는 단어 자체가 어색하게 들렸던 시절이었다. 그리하여 속기사 채용공고를 낸 입법의원 사무처 실무진까지도 국내에 속기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고, 또 있다 해도 실무가 가능한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강준원 · 박인태 · 김천한 속기사 3명—이들은 입법의원이 속기사를 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이 입법의원에 속기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 발로 찾아가서 오히려 환대를 받았고 전격적으로 채용되었음은 물론이다. 마침내 한국 속기의 요람이 막을 올리게 된 것이다.

당초 속기사 정원은 10명으로 결정되었으나 충당할 만한 인원이 없었다. 그래서 1946년 12월 우선 1차로 강준원 · 박인태 · 김천한 세 사람이 속기사에 대한 대우를 우대해 줄 것과 속기사 양성기관 설치방도를 강구해 줄 것을 조건으로 먼저 입법의원에 들어가 속기업무에 임했다. 다소간 시일의 간격을 두고 4차로 나누어 충원이 되었지만 초기에 채용된 사람은 거의 강준원(서울식)으로부터 개인지도를 받은 제자들이었다. 그 면모들을 살펴보자.

1차 : 강준원, 박인태, 김천한
2차 : 박희선, 금학현, 서정록, 김상호(모두 서울식)
3차 : 이용길(독자식), 박상태, 한철영(중앙식), 김용환, 이길식(서울식), 허수(일파식)
4차 : 입법의원 말기에 실습생으로 정원도, 김진기(일파식)

이리하여 우리말 속기진은 1946년 12월 11일 오전 11시 김규식 박사 외 52명의 의원이 참석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예비회의에서부터 그 활동을 개시하였다. 개원 초기의 본회의장은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토론장이었다. 발언자들은 누구나 강한 의욕과 열정이 흘러넘쳐, 본회의와 상임위는 매일 개회되다시피 했고 그것도 종일회의가 태반이었다.

속기사는 당초 비서처 문서과에 소속되었다가 얼마 후에 사무처 의사국 의사과 기록계로 배속되었으며, 계장은 강준원이었다. 작성된 원고는 계장이 통독한 후 편집담당자를 거쳐 인쇄에 넘기는 시스템이었다. 당시에는 속기업무의 양에 비하여 속기사의 수가 절대 부족하였으므로 속기사는 본회의에 국한하여 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기량의 과부하로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2인 1조로 30분씩 기록하게 해도 하루에 두세 번씩 배치될 때가 다반사였고, 속기사가 7명일 때는 계장까지 속기석에 배치되었지만 이 적은 수의 속기사가 그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소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실무 속기사들 대부분이 일어속기만 가능했었고 강준원 · 박인태 등 우리말 속기 창안자들까지도 자신의 속기법에 숙련되지 않았던 까닭에 본인이 직접 창안한 속기법을 쓰지 못하고 발언자의 말을 일본어속기법으로 속기한 다음 다시 우리말로 바꾸어 번문해야 했으므로 업무시간이 배로 걸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렇게 고충과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한 속기사는 과로로 인하여 근무 중 사무실에서 졸도한 후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이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속기사가 늘어나고 현직 속기사들이 야간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진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시간에 속기록을 제대로 발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현 인원으로 1회기(20여 일)의 속기를 전부 번문하자면 무려 3개월이나 걸리기 때문이었다. 고민 끝에 고위층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는데, 결국 속기사가 충원될 때까지 잠정조치로 주요 회의록은 완벽하게 번문하고 보통 안건에 대해서는 약기 형식으로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 잠정조치는 3차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비록 그때까지 회의록은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이러한 잠정조치가 취해지게 된 배경에도 역시 김 의장의 배려가 작용하였다. 번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애로를 이해하는 김 의장이 있어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김 의장은 비단 속기 문제뿐만 아니라 의회운영 방법에 있어 전혀 백지상태였던 의원에서부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노출될 때마다 해법을 제시하고 원활히 운영되게 하는 데 백과사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3차 충원 이후 속기사가 10명 이상 늘어나면서부터 속기시간은 종래의 30분 교대에서 10분으

로 변경되었고 속기록도 정상적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1947년 하반기에 접어들어 속기 부하량이 갑자기 불어나자 과로가 겹쳐 결근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러한 실정임에도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따위의 제도 자체가 없었다. 그리하여 속기사들은 속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줄 것을 탄원하기에 이르렀다.

사무처에서는 속기사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속기사들의 탄원을 일축하였고, 이에 속기사들은 '속기중단' 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약 10일 동안 속기 없는 의회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10일 동안 임시방편으로 임시정부에서 서기로 일했다는 임정요인 김붕준의 따님이 약기로 작성하여 속기공백기를 메웠는데, 이는 속기사에 있어 큰 오점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속기수당제는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끝내 실시되지 않다가 제헌국회에 들어서야 겨우 실현을 보게 되었다.

1948년 5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제헌국회의 속기 진용은 주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짧은 기간이나마 경험을 쌓은 속기사들로 구성되었다. 해방 이후 여러 속기학원—일과속기학원(원장 장기태), 고려속기학원(원장 김천한), 중앙속기학원(원장 박인태), 서울속기학원(원장 강준원)—들이 개원을 하고 인재 양성에 피치를 올렸지만 실력을 갖춘 속기사가 단시일에 탄생되기는 쉽지 않았다.

1948년 봄에 최초로 국회속기사 채용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과목은 상식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기에 있어서는 신문 논설과 국회 속기록 두 종류를 1분간 300자 내외의 속도로 낭독한 것을 속기하고 번문하는 것이었다. 이 시험의 관문을 뚫고 채용된 신예는 정원도, 김진기, 장덕근이었다. 또 얼마 후에 실시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한봉영, 유호룡, 이종호 등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채용시험을 통하여 여러 명이 합격되어 제헌국회 속기진은 20명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직제도 개정되어 의사국 기록계가 '속기계' 로 개칭되고, 회의록 간행업무를 전담할 편찬계가 신설되었다. 속기계장은 역시 강준원이었다. 속기록 작성도 2인 1조로 하고 10분마다 교대하였으며 본회의에만 배치되었다.

2년 임기의 제헌국회가 끝나고 1950년 6월 19일에 개원된 제2대국회는 6 · 25 다음날인 6월

2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전쟁의 와중에 휩쓸리게 되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나 국회도 서울 사수를 결의하였다. 그 결과 많은 서울시민과 함께 속기사들도 피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려 앞서 언급한 제3차 본회의(인쇄 도중 분실)부터 9월 28일 서울 수복까지 피난국회의 국회속기록은 작성하지 못했다. 이는 헌정사에 있어서 아주 큰 공백이 생긴 것이어서 속기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1950년 9월 28일 수도 탈환으로 대한민국이 기사회생됨에 따라 10월 서울에서 2대국회가 열리게 되면서 뿔뿔이 흩어졌던 속기사들도 다시 모이게 되었다. 하지만 전란 중에 피살 · 납북 또는 전직 등으로 많은 속기사를 잃어 당장 국회속기록 작성 실무가 가능한 속기사는 김천한 · 한구영 · 서정록 · 김진기 · 정원도 · 장덕근 · 한봉영 · 유호룡 등 8명에 불과해 이들만으로 산적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다. 이후 11월에 8명이 추가로 채용되었지만 1951년 1 · 4후퇴 때 조직적으로 후퇴하여 속기사도 전원 부산으로 피난 가게 되었다.

부산에서의 의사당은 부산극장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경상남도도청 내 무덕전을 사용하였는데, 원래 회의용 건물이 아니어서 주위 환경이 어수선한데다 방음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소리가 울리고 리시버, 녹음기 등 보조용구마저 없었을 뿐 아니라 속기석은 50년대 학생용 책상과 길상을 사용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하지만 속기사들은 피난지에서 온 국민이 다 같이 겪는 고통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다행히 계엄사령부에서 조선호텔의 방 몇 개를 주선해 주어서 속기사들끼리 합숙할 수 있었다. 거기에다 국회속기사들에게는 병역면제의 특전도 있어서 그런 대로 특혜를 누렸다.

이번 50호에서는 지면상 한계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부터 시작해서 제헌국회까지, 6 · 25전쟁 와중에서도 의정사의 파수꾼 역할을 내려놓지 않았던 기간까지만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남기신 글에서 정말 속기계에 획기적인 사건 몇 가지만 소개하고 싶다.

선배님 인상에 남았던 일 중에 본회의장에서 속기문을 낭독하도록 지시받은 일을 꼽을 수 있겠다. 입법의원 때부터 정파 간에 중요 사안을 토의하다가 과격, 불경,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발언 취소 공방이 벌어지면 김규식 의장은 속기한 기록을 속기사로 하여금 즉석에서 낭독하여

확인하게 하는 일이 생기곤 하였다. 구체적인 일화를 소개하자면, 제헌국회 때 1950년 2월 이른바 국회 프락치사건이 터져 김약수를 비롯한 소장파 11명이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그 주도 인물이었던 노시환(전북 순창 출신)은 평소 발언할 때마다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곤 했었다. 하루는 그가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켜 왕정하의 군왕이라고 혹독하게 몰아붙인 다음 그의 명령은 '짐 즉 국가' 라고 비난한 일이 있었다. 이에 맞서 이 박사의 비서였던 윤치영 의원이 노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때 속기 중이던 서정록이 의장으로부터 문제 발언을 낭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5분여 동안 낭독하게 되었는데, '짐 즉 국가' 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 속기문에 물음표를 쳐 놓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음 그대로 낭독하여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그 속기사는 낭독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흠뻑 젖었다고 한다.

1949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대만의 장개석 총통의 정상회담이 진해에서 개최되었다. 이때 국회속기사로 근무했던 김진기와 허수가 정상회담의 속기를 담당하였다. 이 회담은 진해의 해군 통제부에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이승만 대통령이 오랜 미국 생활을 해서 그런지 우리말이 서툴러서 국제회담장에서 우리말로 하지 않고 영어로 했다. 그래서 영어속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황성수 외무부 정보국장이 옆에 앉아 조그마한 소리로 특별히 통역을 해 주어서 그것을 받아 속기를 할 수 있었다. 이 일은 우리말 속기가 국제회담에서 쓰여진 최초의 일로 기록된다.

한편 재판정에 속기가 등장하여 각광을 받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깨고 미군정이 안두희를 비호하는 것 같은 세론을 씻기 위하여 군정 측의 주재로 심문회가 1948년 9월에 열렸다. 중앙청 2층 제1회의실에서 10여 일간 개정되었는데, 재판장 · 검찰관이 모두 미군 장교였고 미군 당국의 요청으로 국회속기사가 대거 이에 차출되었다. 우리 측은 통역관의 발언을 속기하였고, 미군 측에서는 여성 스테노그래퍼(기계속기사)가 혼자 영어 발언을 속기하고 있었다. 이른바 기계속기를 처음 구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 공판이 우리나라 재판속기의 효시로 기록되었다.

부산 피난시절에 사용됐던 경상남도청 내 무덕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발언자는 이승만 대통령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 졸업식에 신익희 국회의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조봉암 부의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참석하여 속기사 양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1954년 3월)

제2회 대한속기협회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김준원 부회장(1968.4.27)

국회속기사양성소 제1회 수료식(1969.2.15)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2회 정기총회에서 지부승인의 건을 보고하고 있는 정원도 이사장(1969.12.30)

1998년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INTERSTENO 제42차 총회 참석 후 회의장 건물 앞에서 우리 대표단 기념촬영(오른쪽으로부터 성천영 이사장, 김진기 고문, 황인하 기록편찬국장, 이경식 이사)

「출처 : 한국속기 50년사」

위대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나라는 제헌국회 때부터 속기록을 가진 나라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초대 의회부터 속기록을 작성·발간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일본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선진국들은 그 나라 의회정치 초창기에 속기록을 작성할 만한 여건이 구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헌국회 때부터 속기록을 남겨 놓은 것은 속기사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매우 자랑할 만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옛날 인디언 부족들은 모닥불을 둘러싸고 앉아서 부족장이 부족의 신화와 전설을 젊은 부족원들에게 들려주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지난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는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부족들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지곤 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서로 바쁜 일정에 쫓겨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사로서의 위치에 자괴하고 윗세대 분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다.

이번 속기계 50호 특집으로 마련된 이 글이 원로 속기사들과 현재 우리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도 이 작업을 통해서 초창기 속기사(速記史)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고문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 보거나 배경지식이 충분히 축적된 상태는 아니었다. 오로지 제헌국회 속기사 선배들이 남긴 글을 통해 그분들의 이적(履跡)을 추적해 온지라 이 글의 정확성에 대해 완벽하게 자신하기는 힘든 상태다. 그래서 속기계 원로 분들이나 선배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코너를 통해 현직에 있는 속기사들은 자신의 원류를 찾으면서 속기업무에 대해 사명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속기를 장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속기사 지망생들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위대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이라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국회사무처,『(2012)의정자료집 : 제헌국회~제18대국회』, 2013.

이영록,『우리 헌법의 탄생 : 헌법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사』, 서해문집, 2007.

대한민국국회사무처,『국회사1』, 1971.

한국속기50년사편찬위원회,『한국속기 50년사』,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1998.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편집,『의회속기록 관련 자료선집 Ⅱ』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2013.

2. 학위논문

서희경,『대한민국 건국기의 정부형태와 정부운영에 관한 논쟁연구 : 제헌국회의 특별회기(1948. 5. 31~12.19)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 대한속기협회에 대하여

8·15 해방 후인 1946년에 우리나라에는 조선속기학회, 조선속기문화협회, 조선속기사연맹 등등 속기법식마다 협회를 설립해서 여러 속기협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난맥상을 마무리 짓고자 1955년 11월 13일 국회속기사들이 주축이 되어 당시 김진기를 위원장으로 한 발기준비위원회의 주선으로 발기인대회를 갖고 동년 12월에 '대한속기학술협회'를 창립했다. 이 협회는 최초의 범 속기인 단체로서 속기인의 상호친목과 속기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속기문화》라는 기관지를 발간했고, 최초의 속기경기대회도 개최하면서 속기의 대중화를 위해 힘썼다.

대한속기학술협회는 1957년 4월 27일에 협회 명칭을 '대한속기협회'로 변경했다. 그러나 61년 5·16으로 인해 국회가 해산되면서 협회 활동 또한 중지되었다. 이후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됨에 따라 1963년 제6대 국회가 개원되고 나서 복직한 국회속기사들은 1966년 대한속기협회를 재창립하였고, 1969년 사단법인 문화공보부 인가도 획득했다.

대한속기협회는 속기사 양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6·25 발발 이후 속기사 숫자도 없고 양성기관도 전무한 상태였다. 속기사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진기·정원도 두 분이 당시 조봉암 국회부의장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그랬더니 조 부의장이 한국은행을 통해 200만 원, 국회의원들에게 회람을 돌려 200만 원, 문교부에 얘기해서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지만 그 금액으로는 외부에 양성소를 설립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내에 '대한속기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 기관을 통해 1961년 5·16 때까지 10기생을 양성하고 폐교됐다.

민정 이양 이후 1965년 복귀한 국회속기사들은 국회속기사양성기관의 재건을 모색하던 중 당시 권효섭 의사국장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1968년에 국비로 운영하는 '국회속기사양성소'를 신설하게 되었다. 이때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속기법식 개량과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회속기법식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여 동안 각 법식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하여 '의회식'을 창안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대한속기협회는 이전에 대한속기학술협회에서 발간했던《속기문화》의 뒤를 이어 1970년

4월 30일자로 《속기계》를 발행하였다. 이는 속기학술의 연구발표, 회원 상호간의 자기계발과 회원의 동향 및 홍보를 발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1970년에 창간된 《속기계》에는 24만 원의 국비도 지원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창간된 《속기계》는 이후 제11호(1972년 9월 30일)까지는 계절별로 1년에 4번씩 발간하였지만 제12호(1973년 4월 30일)부터는 6개월 혹은 1년만에 발행되었다. 그 후 속기계는 부침에 따라 한두 번의 결호가 있기는 했으나 매년 한 번씩은 발행하여 올해 2014년 5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 대한속기학술협회 및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간된 주요 간행물 〉

1955년 대한속기학술협회에서 발간된
《속기문화》 창간호

1967년 5월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간된
《속기문화》 창간호

1970년 4월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간된 《속기계》 창간호

1972년 3월 21일 발간된 《속기총람》(右)과
1969년 12월 30일에 발간된 《속기개관》

외국의 속기업무 현황 – 영미의회

황 유 진 기자

TV 뉴스에서 외국 의회에 대한 장면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의회 속기사에 눈길이 가는 것은 속기사라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얼핏 보기에 일하는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과연 외국 의회의 속기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미국과 영국 의회에서 언제부터 속기록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속기사는 어떤 내용을 회의록에 담게 되며, 회의록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1. 미국의 의회

1873년 미국 의회는 정부인쇄국(GPO)에 의한 의회 속기록 발간을 표결로 승인하여 '토론속기사'를 고용하고 의회 회의록 발간을 개시하게 된다.

의회 회의록(Congressional Record)은 미국 의회의 의사 및 토론에 관한 공식기록이다. 실질적으

회의가 열리고 있는 미국 의회, 맨 아랫줄에 속기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출처 : www.c-span.org)

로 의회 회의록은 상 · 하원 본회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정활동을 축어로 기록한다. 의회 회의록은 하원 회의록, 상원 회의록, 그리고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충하는 정보 등을 포함한 발언보충서, 당일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관한 개요를 담은 일일공보로 이루어져 있다.

하루 평균 약 2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의회 회의록은 하원과 상원 조직 각각에 두고 있는 속기과(Offices of Official Reporters) 내 속기사에 의해 작성된다. GPO가 의회 회의록의 인쇄 · 발행기관이라면 의회 속기과는 의회 회의록의 작성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의회 속기과에 소속된 이들 속기사는 본회의장에서 행해진 모든 발언 및 처리된 모든 안건을 기록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속기과는 의원이 의회 회의록의 발언보충서에 행하지 않은 발언을 삽입하기 원하는 경우 자료 분량을 2장 이내가 되도록 도와준다. 또한 행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의 친필 서명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의회 회의록은 상원 혹은 하원 중에 어느 한 원이 회기 중일 때 GPO에 의해 매일 인쇄되어 배포된다. 의회 회의록은 전날 의회 활동 보고를 담고 있으며, 상 · 하원과 의회 내 각 사무실로의 전달을 위해 이른 아침 GPO로부터 의회 우체국으로 넘겨진다.

열람과 같은 경우 의회 회의록은 매일 상원과 하원 그리고 의회 내 사무실로 전달되며, 상 · 하원 회의실 내에도 놓여진다. 또한 의회 회의록은 GPO의 연방디지털시스템(www.gpo.gov/fdsys) 또는 의회도서관 입법정보시스템(beta.congress.gov)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미국의 상 · 하원의 의사진행이 각각 1979년, 1986년부터 진행되어 온 이래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어 오고 있지만 의회 속기록은 현재 양원의 의사와 관련한 가장 신뢰성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국의 의회

영국 의사에 관한 기록을 담은 회의록 중 속기사가 작성하는 회의록을 핸서드(Hansard)라고 한다.

초기의 의회 토론 문서(Parliamentary Debates)는 신문에서 발췌한 연설을 재발간하는 형식이었으나 1812년 토마스 커슨 핸서드가 의회 토론 문서의 권리를 사들인 후 'Hansard's Parliamentary Debates'는 영국 의회 의사진행에 있어서 가장 신뢰성 있고 정확한 기술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영국 정부는 보다 많은 의회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핸서드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영국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속기를 하고 있는 속기사의 모습
(출처 : www.parliamentlive.tv)

1909년 하원은 핸서드를 발간하는 책임을 맡기로 결정하고 11명의 하원 속기사를 채용하였다. 그 후 핸서드라는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핸서드'의 사용은 지속되었고 1997년부터 양원의 핸서드는 의회 웹사이트(www.parliament.uk)상에서 온라인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핸서드는 의회 양원 의사에 관해 축어로 기록되는데 모든 발언자가 똑같은 일인칭으로 서술되며 정확하게 축어적 기술은 아닐지라도 중복되고 발언에 대한 실수가 교정된 반면에 연설의 의미가 더해지거나 토론을 설명하는 어떠한 것도 배제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영국 의회의 핸서드는 의장의 감독하에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는 속기국에 의해 작성 및 배포되

고 있다. 핸서드의 발간은 상원의 경우 핸서드계(Hansard Office)가 담당하며, 하원의 경우 속기과(Official Report Directorate)가 담당하고 있다. 하원 핸서드는 하원 본회의, 웨스트민스터홀 본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경우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의사를 기록하며, 상원 핸서드는 상원 본회의, 대위원회의 의사를 기록한다.

하원 본회의장의 경우 핸서드 속기사는 하원의장 위쪽의 방청석에 앉아 본회의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발언을 기록한다. 웨스트민스터홀 본회의장의 경우에는 속기사는 의장 옆에 앉고, 상원의 핸서드 속기사는 상원의장을 마주보는 Bar of the House 아래 앉는다.

핸서드 속기사는 통상적으로 약 16인이 한 조로 순번을 정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돌아가며 속기업무를 수행한다. 속기사들은 자신의 기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내용을 책임편집자에게 보내면 편집 과정을 거쳐 인쇄를 위해 정부출판국에 전자적으로 송부된다.

영국 의회의 핸서드는 일간판의 경우 매일 단위로 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제본판 역시 의회 웹사이트 및 CD-ROM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핸서드는 정부출판국과 의회서점에 의해 일반에 판매되고 있다.

참조 : 윤대근, 『국회 회의록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1.

세계문학사에 빛나는,
한 여성 속기사의 위대한 사랑

홍 기 표

표도르도스토옙스키(1876년)

안나 스니트키나(1871년)

고통의 한계까지 시달렸을 때,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을 호흡해야 할 때 우리는 도스토옙스키를 읽어야 한다. – 헤르만 헤세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책, 특히 문학작품은 내 자신의 것을 비롯해서 모두 불살라 버려도 무방하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만은 예외다. 그의 작품은 모두 남겨 두어야 한다. – 레오 톨스토이

가장 아름다운 청춘

도스토옙스키(1821-1881)를 흔히 '세계 소설의 최고봉'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여인의 희생적인 내조가 없었다면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작품들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 위대한 여인의 이름은 안나 스니트키나(1846-1918). 45살의 도스토옙스키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혜성처럼 등장한 그녀는 19살의 어린 속기사였다.

그녀는 작가를 그 위기에서 구해 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 14년간 작가가 죽을 때까지 인생과 창작에서 뗄 수 없는 반려자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엄청난 대작인 『죄와 벌』『백치』『악령』『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 등은 사실 작가가 안나 스니트키나를 제때 만나지 못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도스토옙스키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 때문이었다. 그는 평생을 빚쟁이에 쫓겨 살고 있었던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왜 항상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을까?

우선 그의 선하고 약한 마음 때문이었다. 그는 멋모르고 비밀독서회에 들어간 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감형을 받게 된다. 형기를 마친 후 하사관으로 군 복무를 할 때 그는 아이 딸린 과부를 만나 결혼한다. 그러나 그 과부는 곧 병으로 죽고 그 아이를 책임져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 후에 자신의 후원자였던 형이 죽자 그 형수와 다섯 아이들의 생계, 그리고 형이 남긴 부채까지도 책임지게 된다. 형이 남긴 부채는 자그마치 1만 5000루블이었다.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250루블이었으니, 이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5년간 꼬박 모아야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다.

게다가 도스토옙스키는 도박, 특히 룰렛게임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돌 정도로 심하게 중독되어 있던 도스토옙스키는 항상 돈을 몽땅 잃었지만 딸 수 있다는 환상을 끝내 버리지 못하고 늘 도박에 매달렸다. 이를 두고 정신병리학에서는 '도스토옙스키 신드롬'이라는 용어까지 생겼다고 한다.

이렇게 항상 빚에 쫓기던 도스토옙스키는 새로운 작품을 쓰는 대가로 출판사로부터 선금을 받아 탕진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항상 마감 기한에 쫓겨 급하게 작품을 쓰다 보니 『죄와 벌』 같은 긴박한 스토리 전개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다.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에 안나 스니트키나가 등장한 것도 그가 쫓기며 『죄와 벌』을 쓰고 있을 때였다. 그는 스첼롭스키라는 악덕 출판업자에게 미리 선불을 받는 대신 매우 위험한 계약에 서명했다. 한 달 안에 새로운 소설을 탈고하지 않으면 향후 9년간 모든 새로운 작품의 저작권을 몽땅 스첼롭스키에게 넘기기로 한 것이다.

『죄와 벌』의 집필을 불가피하게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던 작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작품의 주제를 자기를 그토록 지독하게 고생시켰던 '도박'으로 정하고 집필을 준비한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완성본을 만들어 내기에는 당시 도스토옙스키의 체력으로는 사실상 역부족이었다. 친구의 권유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속기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하는데, 바로 이 속기사가 안나 스니트키나였다.

가난한 귀족의 딸로 태어난 안나는 어린 시절 이미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으로부터의 기록』이라는 작품에 깊이 감명받아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지고 사범대에 입학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사범대를 중퇴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속기사가 되었던 것이다. 이미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있던 지혜롭고 부지런한 안나의 도움으로 작가는 단 26일 만에 『도박자』라는 소설을 탈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채 끝내지 못했던 『죄와 벌』의 마무리 작업까지 그녀 덕분에 무사히 마치게 된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의 마지막 날, 도스토옙스키는 원고를 넘겨주러 출판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출판사 사장은 일부러 자리를 비우고 그를 만나 주지 않았다. 작가가 출판업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 완성된 원고를 건네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다. 출판업자는 이를 빌미로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들에 대한 권리를 빼앗아 버릴 속셈이었던 것이다.

속기사로서 같이 작품을 완성했던 안나는 순진한 도스토옙스키와는 달리 이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안나는 도스토옙스키에게 이에 대비하여 처음부터 아예 공증인을 대동하고 출판사에 갈 것을 권했다. 그렇게 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작가는 분명히 약속 기한 이전에 원고를 완성하여 넘겼다"는 공증을 받아 놓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도스토옙스키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성실하고도 현명한 어린 안나에게 완전히 매료된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작품이 끝난 며칠 후인 1866년 11월 8일 그녀에게 청혼을 한다. 이 청혼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러시아 문화사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될 정도라고 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안나가 청혼을 거절할까 두려웠다. 그래서 마치 새로운 작품 구상을 하는 것처럼 둘러서 안나의 의중을 떠본다.

늙고 병들고 가까운 이웃들마저 떠나보낸 중년의 화가가 젊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소설 스토리를 들려주며 이렇게 질문한다.

"젊은 여인이 늙고 병든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은 이 여인에게 너무 큰 희생이지 않을까."

그러자 안나가 대답한다.

"그게 왜 불가능할까요? 그녀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녀 또한 행복할 거고 아무것도 후회할 게 없을 거예요!"

작가는 마침내 속마음을 꺼내 놓는다.

"만약 당신이 잠깐 그녀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자. 그리고 이 화가가 나이고,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한다고 상상해 본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비로소 자기가 청혼을 받고 있음을 깨달은 안나는 도스토옙스키를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한다.

"나라면 아마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렇게 하여 다음 해인 1867년 2월 15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름다운 트로이츠키 성당에서 두 사람은 멋진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 도시에 그대로 남아 도스토옙스키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현명한 속기사, 내조의 여왕

그토록 아름다운 청혼으로 맺어졌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남들처럼 달콤한 신혼살림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안나에게 결혼 초 한 달은 너무나 괴로운 악몽 그 자체였다. 도스토옙스키의 전기 작가들은 이 한 달을 블랙 허니문(black honeymoon)이라고 부를 정도다.

빚더미 위에 있던 도스토옙스키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 작품 『백치』에 대한 원고료 3000루블을 선불로 받아 낸다. 그러나 그 3000루블은 대부분을 기존의 급한 빚과 전 부인의 아들, 죽은 형의 아내와 다섯 아이들의 생계비로 금세 소비해 버리고, 달랑 1000루블이 남게 되었다. 게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형수의 가족들이 아예 한 지붕 밑으로 들어와서는 매일 생활비를 요구하고 작가의 어린 새 신부를 들들 볶기 시작했다. 행여나 이 굴러온 돌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금전적 지원이 끊기지나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좁은 집안에서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활동은 불가능했다. 안나에게는 고통의 나날이, 작가에게는 절필의 나날이 이어진다.

결국 우유부단한 도스토옙스키에게 더 이상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한 안나는 특단의 결심을 단행한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사람은, 그리고 작가가 다시 창작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안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지금의 환경에서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러시아를 떠날 것을 주장한다. 친척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자신의 모든 패물을 팔아 여비를 마련한 안나는 3개월 계획으로 멀고 먼 이국 스위스로 떠나는데,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스위스로 가던 길에 독일의 바덴바덴에 들른 도스토옙스키는 다시 카지노의 룰렛에 빠져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을 탕진한다.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복, 심지어 어린 아내의 원피스까지 날려 버린다. 정말 설상가상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다. 안나가 이런 도스토옙스키에게 바가지를 긁

기는커녕 오히려 직접 나서서 도스토옙스키의 도박을 부추긴 것이다. 남편의 손을 잡고 도박장에 데려가 주고,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실컷 도박을 즐기게 했다. 돈을 구해 달라고 어린 신부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정하는 남편을 위해 식기 세트, 귀걸이 등을 내다 팔아 돈을 구해 준다. 그 모든 생활고는 어린 안나가 스스로 해결했으며, 이런 힘든 생활은 애초에 목표했던 3개월을 훌쩍 넘어 4년간 이어진다. 그사이에 3명의 아이까지 낳았으니 일가친척 하나 없는 이국땅에서 이 어린 여인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런데 안나는 왜 이 어려움을 자초하며 도스토옙스키의 도박을 장려했을까? 현명하면서도 남편을 깊이 사랑한 안나는 그동안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는 도박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나무랄 경우 정신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발작이 더욱 잦아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분간은 도박을 통해서만 창작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 위대한 작가의 영감을 위해서 그녀는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희생과 사랑이 극단적인 자학과 자책에 빠져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영혼을 결국은 갱생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작가의 작품 『죄와 벌』에서 살인자 라스콜리니코프를 구하는 가엾은 창녀 소냐가 사실 도스토옙스키 옆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나는 작가의 성격상 절망과 고통의 끝을 맛보아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그 기적의 순간은 실제로 찾아온다.

긴 도박의 늪에 빠져 있던 도스토옙스키는 어느 날 문득 임신한 어린 아내가 따뜻한 옷 한 벌 없이 내버려져 있고 뱃속의 아이까지 죽을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불현듯 깨닫고 대성통곡한다. 그리곤 "나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 거의 10년간 나를 괴롭혔던 더러운 환상이 사라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것을 평생 기억하고 매번 나의 천사를 축복할 것이다." 이 갱생의 변을 시작으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도박으로부터의 승리는 안나가 이뤄 낸 많은 업적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녀는 먼저 러시아 여성 특유의 강단을 보여 채권자들을 설득한다. 작가의 형으로부터 물려

받은 채무를 장기간 할부 변제하게 해 주지 않으면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협상에 성공한다.

그리고 경제관념이 전혀 없어 항상 불리한 출판 계약에 시달리던 도스토옙스키를 위해서 직접 출판업에 뛰어든다. 『악령』을 출판하려고 할 때 단돈 500루블, 그것도 2년에 걸쳐 나누어 지불하려는 출판사의 횡포에 저항하여 직접 인쇄소를 찾아가 외상으로 종이를 구해 책을 찍어 낸다.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전량 판매에 성공, 4000루블의 순이익을 본다. 그 돈으로 작가의 도박 빚을 청산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수완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남편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의 작품들도 출판하여 도매 판매에 성공한다. 세간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매니저를 얻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

그런 아내 덕분에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층 집도 마련한다. 그 와중에도 안나는 매일 작가의 충실한 속기사 노릇을 잊지 않았으며,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엄마 역할도 충실히 이행했다. 그야말로 슈퍼맘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 덕분에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작품 『까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작품들을 안정적으로 집필할 수 있었으며, 살아 있을 때 이미 당대 최고의 작가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혼한 지 14년이 지난 1881년 60세의 도스토옙스키는 치명적인 폐기종에 걸린다. 어느 날 후두 출혈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한 작가는 아침부터 아내를 불러 그녀의 손을 잡고 자기가 오늘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성경을 아무 페이지나 펼쳐 읽어 줄 것을 부탁한다. 항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을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나오는 글귀로 운명을 점치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 펼쳐진 마태복음 3장 14-15절에는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예수를 만류하자 예수가 "우리는 장차 위대한 진리를 실현할 것이니 붙잡지 마시오."라는 구절이 있었다. 도스토옙스키는 "여보, 이제 내가 저세상으로 갈 테니 붙잡지 마시오."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나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기억하오, 안나. 나는 항상 당신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리고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다오. 심지어 생각으로도 말이오."

남편이 죽은 뒤 안나는 시력을 거의 잃어 돋보기로 교정을 보아야 하는 상태에서도 손수 7권으로 된 남편의 전집을 출판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넘긴 출판 수익 이외에 자신의 몫은 대부분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여생을 남편의 뜻을 전하는 데 매진했다.

탁월한 지혜와 끊임없는 인내로,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를 탄생시킨 안나 스니트키나! 그녀는 맡은 일에 정성과 책임을 다한 진정한 속기인이었고, 우유부단하여 중심을 못 잡고 방황하는 남편을 세계문학사상 최고봉으로 이끈 내조의 여왕이었다.

▶ 이 글은 e-의정 아카데미의 '줌 인 러시아'(강사 : 삼성경제연구소 이대식 수석연구원) 중 일부 내용에 다른 자료를 보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나의 속기학술세미나

안 상 훈

여의도 가로수길이 하얀 벚꽃잎들로 가득 메워져 함부로 발을 디디기조차 조심스러웠던 4월이 지나가고 연중 가장 아름다운 해를 독점한다는 5월을 맞이했다. 이런 좋은 날씨는 딱히 갈 곳이 없어도 어디론가 무조건 떠나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마저 갖게 한다. 때마침 속기학술세미나 선발대 멤버로 행사 준비에 임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나로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 한 달간 이어진 정신없던 임시회로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을 즈음 야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자 입사 후 언젠가 한 번은 꼭 해 보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행사 하루 전날 아침 일찍 출발한 우리 선발대는 정오쯤 서울을 벗어나 강촌역을 지나고 있었다. 차량으로 조금 더 이동해 도착한 곳은 이번 행사 기간 내 묵게 될 '강촌 엘리시안'이라는 멋진 리조트. 이번 행사에 딱 어울릴 만한 아름다운 장소였다.

봄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사방에 울긋불긋 피어 있는 붉은 봄꽃들과 탁 트인 잔디 벌판, 이내 대기권마저 뚫을 기세로 시원스레 뻗어 올라가던 분수 물줄기에 나도 모르게 살짝 마음이 설렌다. 마침 또 봄바람까지 살살 불어오니 내가 이곳에 일을 하러 온 것인지 휴양하러 온 것인지 잠시 잊게 만들 만큼 기분 좋은 시작이었다.

우선 속기학술세미나를 소개해야겠다. 이 행사는 국회, 법원, 지방의회, 검찰청, 속기사무소, 자막방송 등 전국에서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속기사들이 1년에 한 번 한자리에 모여 속기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친목을 다지는 1박 2일간의 행사이다. 근무 지역과 하는 일의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속기사라는 이름하에 속기계의 기쁜 일을 축하하고 현실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문제도 함께 고민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선발대는 행사 준비를 위해 하루 먼저 행사장에 도착한다. 우선 우리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객실 체크와 인원 배치, 콘도 입구부터 행사장까지의 동선 파악, 현수막 세팅과 각종 기념품 준비,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비상약 등을 준비한다. 행사장 내부 준비를 마친 후엔 외부 행사를 위한 답사가 이어진다. 발품을 팔며 식당 예약과 구곡폭포 사전답사까지 끝내고 나니 하루해가 벌써 기울었다. 지녁이 되었지만 빠지거나 잘못된 것은 없나 계속된 점검의 연속,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최혜련 사업부장님의 적절하고 정확한 지시가 없었다면 행사 준비의 반도 마치지 못한 채 허둥지둥대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밤늦게야 모든 준비를 끝내고 숨을 조금 돌릴 수 있었다. 창문 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니 행복하고 여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내일 무사히 잘 마쳐야 할 텐데라는 걱정도 잠시, 이내 곧 잠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이제 드디어 행사의 시작이다. 전국 각지에서 속속 회원님들이 입장하고 행사장으로 이동까지 마친 후 시작된 세미나의 일정.

이사장님과 부회장님의 축사 및 원로 선배님들의 인사말씀으로 제21회 속기학술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1차 강연은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사님이신 이한우 한양대학교 교수님의 음성인식 솔루션의 기술 발전과 음성-문서 변환(VoiceDoc) Prototype에 대한 종합적인 강의였다. 향후 음성인식기술의 발달이 속기계에 미치게 될 영향과 우리 속기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의 논의였다. 속기계가 닥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의 강연이라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2차 강연은 속기사 출신으로 현재는 KT인재개발원에 계시는 이해득 선생님의 강의. 세상을 살면서 위축되는 삶의 현장에서 가슴을 넓게 펴고 행동할 수 있게 하라는 소통에 대한 강의 시간, 공감하는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정말 유쾌하고도 재미있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셨다.

진지하고도 유익했던 주제 발표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 식사 시간.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신 회원님들을 위해 특별히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된 뷔페 음식과 함께 편한 분위기로 즐기고 화합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멋진 강연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신나게 놀아야 할 시간이 아닌가.

저녁 식사와 더불어 진행된 행사의 하이라이트 장기자랑 시간. 올해 2부 행사에서는 사회자의 세대교체가 있었다. 지난 몇 기의 세미나를 거치는 동안 장기자랑 시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진행은 바로 이런 것이다를 몸소 보여 주신 '화합의 달인' 이동준 총무이사께서 김경재 총무부장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김경재 사회자, 평소 분위기 메이커로서 특유의 유머와 재치를 겸비한 그의 진행으로 행사장은 이내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회 신입 속기사 두 분의 립싱크 무대를 시작으로 깜찍한 춤을 보여준 인천속기학원의 여자 회원님들을 비롯해 자막방송 과장님의 노래가 이어졌다. 마지막 순서는 박광덕 회원님의 가수 성시경 씨 모창과 마술쇼. 감미로운 노랫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지자 여자 회원님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모창에 이어진 쇼에서는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마술들이 펼쳐졌다. 깔끔한 무대 매너 또한 프로의 그것이었다. 재능을 하나 가지기도 어려운데 여러 사람 앞에서 저런 멋진 공연을 하는 그가 내심 부럽기도 하였다.

장기자랑이 끝나갈 즈음 주위를 둘러보니 나를 비롯해 회원들 모두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었다. 막바지에 이를수록 점점 더 하나가 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신나게 다함께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행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다.

즐거웠던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마련된 공식적인 행사는 모두 끝이 났다. 행사장 정리 후 숙소로 이동.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엔 뭔가 아쉽다. 삼삼오오 모여 비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었다. 혹자는 이 시간을 위해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했던 것 같다. 잔 하나씩 들고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며 정을 나누는 시간. 평소 조금은 어렵게 느껴졌었던 선배님들과도 술잔을 주고받으며 밤늦게까지 이어진 훈훈한 대화 속에는 선배님들의 소중하고 진심어린 경험과 충고가 담겨 있었다. 밤늦도록 계속되는 술자리의 정은 계속해서 깊어가고 즐거움은 점점 배가된다. 평소 술을 잘하지 못하던 나로서도 이날만큼은 용기 내어 술잔을 단숨에 주욱 들이켜 본다.

어제의 취기가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세미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우리의 시계는 분명 어제 새벽에서 멈춰진 듯했지만 현실의 시계는 계속 돌고 있었나 보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렸을까.

리조트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후 구곡폭포로 발걸음을 옮겼다. 헤어진다는 아쉬움에 아름다운 추억을 사진 속에 담고자 저마다 바쁘다. 하지만 몇 장의 사진 속에 이 아쉬움과 추억들을

전부 담을 수는 없을 것만 같았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다들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지만 먼 길 오신 손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한 끼 든든하게 잘 챙겨 드리고 보내 드려야 우리 마음도 편할 듯싶다.

그리하여 준비된 메뉴는 춘천의 자랑인 닭갈비와 막국수.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진 닭갈비에 구수한 막걸리가 준비되었다. 잘 가라는 인사 대신 막걸리를 잔에 가득 부어 부딪치며 서로의 건강과 마지막 안녕을 바라는 것을 끝으로 준비했던 모든 행사 일정은 종료되었다. 더불어 우리 선발대의 임무도 아무 문제없이 종료되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또한 강연 준비를 위해, 장기자랑 준비를 위해 며칠 동안 고생하셨을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이곳까지 와 주신 모든 속기사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매해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한다. 올해 세미나로 우리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기사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한없이 기쁘고 자랑스러웠던 시간이었다. 더욱 멋있고 알차게 꾸며질 내년 행사를 기약하며 이상 후기를 마친다.

신임관리자 과정 해외봉사를 다녀와서

최 윤 정

1 일차

오전 8시 인천공항 가루다항공 카운터 앞에서 집합하여 짐을 부치고 보딩패스를 받은 후 트레인을 타고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10시 35분 비행기가 이륙하였다.

우리나라와 도착지인 인도네시아의 시차는 한국이 두 시간이 빠르다. 약 7시간 비행 후 현지시간 오후 3시 30분에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였다. 따뜻하지만 매캐한 매연으로 감싼 공기가 우리를 맞아 주었다.

공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렌터카를 이용해서 숙소인 자카르타 시내 아리야 두타 세망기(Arya Duta Semanggi)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잠시 호텔 근처를 산책하려고 나왔으나 인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연도 심하여 포기했다. 플라자 세망기에서 물과 약간의 과일 등을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연수 첫날 밤이 깊었다.

2 일차

봉사활동 장소인 보고르시에 있는 텐조농장 가는 날이다. 출근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7시 40분경 호텔을 출발하였다. 보고르는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자카르타에서 두 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예정했으나 예상치 못한 교통 정체 구간을 만난데다 중간에 잠시 길을 잘못 들어 12시 30분경에야 도착하게 되었다.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길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도착해도 잦아들지 않고 더욱 거세게 내렸다. 이미 점심식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먼저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마침 비도 멎어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실험용으로 다양한 종의 옥수수가 심어진 밭에서 잡초를 뽑아내는 일과 모종을 심는 일이었다. 먼저 시골이 고향인 동료들로부터 잡초를 뽑는 요령을 배웠다. 옥수수를 건드리지 않고 잡초만 뿌리째 뽑아내려고 집중해서 일하다 보니 꽤 넓은 작업 터가 제법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비가 온 덕분에 땅이 질어져서 뿌리를 뽑아내기가 훨씬 쉬웠고 온도가 떨어져서 일하기에도 좋은 조건이었다.

작업을 마치고 남원농업기술센터에서 30년을 근무하다 코이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부터 텐조농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돌아오니 호텔 도착시간은 저녁 9시 반이 되었다.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이 슬슬 몸으로 느껴진다.

3 일차

다음날은 룸핀 양묘센터로 이동해 묘목을 심기 위해 아침 8시에 호텔을 출발하였다. 룸핀 역시 보고르에 있다. 룸핀 양묘센터는 인도네시아의 열대림 복원을 목표로 세워졌는데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원사업(ODA)의 일환으로 지원한 사업장이다. 따라서 임목 종자개량을 위한 실험 연구동과 증식장 등을 갖춘 현대식 시설로 역대 의장님이나 의원들도 많이 다녀가셨다고 한다.

묘목을 심고 양묘장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서둘러 자카르타로 돌아왔지만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귀가한 시간은 역시 9시 반 무렵이다. 몸은 피곤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마음 한구석이 뿌듯하다.

4 일차

코이카 사무소를 방문하는 날이다. 코이카 자카르타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같은 건물을 쓴다. 자카르타는 테러의 위험 때문인지 경비의 복장도 군인과 비슷하고 일반적으로 경비가 우리나라보다 더 삼엄한 느낌이다. 이곳은 대사관이 있는 건물이라서 더 까다로워서 대사관 로비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얼핏 9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모습과 오버랩 되면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민주화되고 자유로운 국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이카 사무소에서 소장님으로부터 코이카의 활동을 보고받았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코이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은퇴하시고 이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계셨다. 봉사활동을 떠나기 전 사전교육을 통해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크게 감동이 없었는데 막상 와서 우리나라 정부, 비정부 기구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접하니 우리의 국제적 위치와 그에 맞는 책임감 등이 새롭게 마음에 다가왔다.

글을 맺으며

떠나기 전 연수기간 중 이런 식의 봉사활동은 형식적인 것이고 구색 맞추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런데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나니 그 시간이 무척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나의 어설픈 작업이 농장의 전체 일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했겠지만 그렇게 여러 사람의 조금씩의 참여와 관심이 봉사활동의 의미가 아닐까 싶다.

또한 몸을 움직여 무언가를 함께할 때 그 구성원들이 동료애와 친밀감이 저절로 생겨나

는 것을 느꼈다. 나이도 다르고 소속도 달라 조금은 어색한 가운데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구성원들이 해외 봉사활동 이후 훨씬 편안하고 스스럼없이 서로를 대하게 되었다.

자기가 경험해 본 것에 대해서는 책이나 다른 이를 통해서 들은 것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배우고 가슴에 담게 된다.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해외여행이든. 그래서 이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감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다니고 많이 경험하십시오.

친구에게

장 미 경

친구야, 안녕?

너무 오랜만에 소식 전하는구나. 잘 지내고 있지?

이곳 여의도는 완전 봄이야. 30여 년 전 너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봄이었지, 아마.

난생 처음 속기라는 것을 알고 한참 속기의 마력에 빠져들기 시작할 무렵 우리가 느꼈던 그 봄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어. 나무에 연하게 올라오는 새순을 보면 마치 그때의 우리 모습 같아 웃음이 절로 나온다.

1년 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지. 한 번의 쓴잔을 마시고 난 후에도 난 속기에 미련이 남아 차마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었어. 다시 한 번 도전해 국회 속기사가 됐을 때 난 마치 온 세상을 얻은 것마냥 한없이 기뻤지.

국회 속기사가 된 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내 맘은 여전히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작년에 승진했다고 말했었나? 오지 않을 것같이 막연

하게만 느껴지던 사무관으로 승진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 그 1년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아마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

승진이 발표되던 날 어머니는 입원을 하셨어. 지쳐 눈 감고 누워 계시는 어머니께 속으로만 '어머니, 저 승진했는데……' 하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무척 속상했었다.

이후 6주간의 신임관리자 교육을 받았지. 어머니 건강 때문에 불안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승진 후 제일 기쁘고 즐거운 기간이었어. 다소 나이 차이가 나는 동기들이지만 서로 축하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보낸 시간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사무관에 임용된 다음부터는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집안일이 겹쳐서 그랬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안 계신 공간이 너무 커서 그랬을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들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은 지쳐만 갔어. 그럴 때마다 '아,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만 하는 거구나' '어른은 그냥 되는 게 아닌가 봐' 하며 스스로를 달랬었지.

담당 회의가 두 개만 열려도 속기 집무순서 운용에 당황하고, 예상 못 한 회의 상황 전개에 허둥대며 칠판에 매달리고 있는 사이에 검토해야 할 회의록은 계속 쌓여만 갔지. 선임 계장님들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처리했을까 하며 그 능력에 감탄 안 할 수가 없었어. 또 방 식구들이 내 결정만 기다리며 얼굴을 쳐다볼 때는 '승진하면 책임질 일만 생겨요' 하신 과장님의 조언이 새삼 떠오르곤 했지.

원고를 보며 검토하는 일도 어렵지만 직원들 대하는 것이 내게는 더 어려웠어. 승진하기 전에는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됐었지만 관리자는 그렇지가 않았지. 그 전까지는 난 내가 남들과 잘 소통하며 원만히 지낸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같은 동료들인데도 다르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중간 관리자인 사무관의 역할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더라구. 직원들에

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것은 지금도 쑥스럽고 어려워. 하지만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는 것을 보면 난 그동안 얼마나 어렸었고 부족했는지 몰라. 지금도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를 자주 묻곤 해.

그 와중에 찾아오는 주말은 어찌나 반갑고 달콤하던지…… 아마 주말과 가족이 없었다면 견뎌 내기가 힘들었을 거야.

친구야,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참 감사한 게 많은 것 같아. 극히 평범한 내가 승진한 것이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저절로 찾아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 가족들, 선배님들, 동료와 후배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을 거야. 그러고 보면 승진은 나에게 고통도 주었지만 한편으론 큰 가르침도 주었어. 세상은 혼자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 겸손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겪은 자에게 기쁨과 성숙이라는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 말이야.

바람이 많이 분다. 윤중로의 벚꽃은 지면서도 참 아름답구나. 이제 몇 번이나 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도 벚꽃처럼 아름답게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사무관 되자마자 무슨 퇴직 생각이냐구? 하긴 이제 1년 된 병아리 사무관이 할 생각은 아닌 것 같네.

고맙다, 친구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내 옆에서 날 좀 잘 도와줘. 내가 받은 것만큼, 아니 받은 것 이상으로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말이야. 다음에 만날 땐 내가 좀 더 자랑거리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 그러고 보니 너무 내 얘기만 했구나. 미안해. 이것도 내가 고쳐야 할 것 중의 하나야. 아유, 난 언제나 어른이 될까?

속기로 속전속결!

손 정 아

2012년 4월, 대학교 졸업을 단 한 학기 앞두고 나서야 나도 슬슬 취업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명문대도 아닌데다 학점도 좋지 않고 인턴이나 어학연수 경험도 제로, 그렇다고 별다른 특기나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평범 이하' 였던 나는 우연한 기회로 속기를 알게 되었고,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속기학원을 등록했다.

사실 속기 자격증으로 국회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말에 혹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국회 속기사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속기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자격증만 있으면 꼭 국회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바로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졸업이 코앞인 상황에서 속기 외에 다른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떠밀리듯 시작한 속기였지만 속기 공부는 생각 이상으로 내게 잘 맞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속기에 대한 확신도 커져 갔다.

그렇게 1년 뒤 나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원래 내 목표였던 1급은 불합격이라는 사실에 많이 속상했지만 일단 2급이나마 자격증을 땄으니 취업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국회가 아닌 다른 법원, 지방의회 등은 뽑는 인원도 극소수인데다 정기적으로 뽑는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채용 공고가 나기를 기다리는 건 수주대토(守株待兎)나 마찬가지였다. 운 좋게 채용 공고가 난다 하더라도 내가 바로 합격하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 매년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는 국회로 다시 눈을 돌리게 됐고, 올해 국회 채용 공고를 보니 앞으로 다섯 달도 채 안 남은 9월에 바로 시험이 있었다. 당연히 올해 합격은 무리일 거라 생각하고 내년 시험을 목표로 속기 연습과 국회 필기시험 준비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국회 속기사를 향한 내 열정도 부족했고 또 내년 시험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좀처럼 필기시험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곤 했다.

그러던 중 학원 원장님의 제안으로 속기학술세미나에 참가하게 됐는데 1박 2일간의 이 세미나가 나를 바꿔 놓았다. 그곳에서 직접 들은 국회 속기사 선배님들의 업무 관련 이야기, 또 내가 국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농담으로 던지신 "국회에서 꼭 보자!"라는 말씀에 갑자기 이번 시험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이다.

이들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내가 받은 자극은 결코 작지 않아서 세미나를 다녀온 바로 그다음 날부터 오직 국회만 생각하며 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필기시험 당일에는 운도 따라 주어서 공부 기간이 짧았던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렇게 정말 꿈처럼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2차 실기시험은 필기 공부를 하는 중에도 매일 꾸준히 2시간씩 속기 연습을 해 온 덕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다. 그 자신감 덕분인지 극도의 긴장감에 손가락이 덜덜 떨렸던 국가시험 때와는 달리 차분하게 시험을 마치고 합격할 수 있었다.

오히려 마지막 관문인 면접이 가장 걱정이었는데 속기 경력은커녕 아직 자격증도 2급인데다 면접 경험 역시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면접관들과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제대로 못 할 줄 알았던 나는, 그저 내가 국회에 와서 면접을 본다는 것 자체가 설레고 신이 나서 걱정과는 달리 재미있게(?) 면접을 마칠 수 있었다.

그렇게 얼떨결에 3차 면접까지 합격하고 국회로 출근하게 된 지도 벌써 네 달이 지나간다. 아직도 아침마다 국회로 들어서는 게 실감나지 않고 매달 내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도 신기하다. 가끔은 매일 똑같은 시간표에 맞춰 틀에 박힌 수험 생활을 하던 그 당시를 꿈에서 다시 겪기도 한다. 아마 매차 합격을 확인하던 순간의 떨림과 기쁨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사실 속기를 알기 전까지는 무언가 뚜렷한 목표를 가져 본 적도 없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은 더더욱 없었다. 내게 꿈을 심어 주고 또 그 과정에서 나를 훌쩍 성장시켜 준 속기를 만난 행운에 너무도 감사하다.

앞으로도 늘 지금과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람찬 직장 생활을 죽 이어가고 싶다. 또 내가 작년 세미나에서 선배님들 말씀에 자극을 받아 합격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국회 속기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돌고 돌고 돌고 그리고 시작

이 서 진

〈프롤로그 – 회상〉

무슨 이야기부터 적어 나가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언젠가 나도 반드시 적고 말리라' 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쓰려고 하니 첫 문장부터 턱 막히는 것이 수기 쓰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앞선다.

아무튼 마음을 다잡고 이제부터 나의 지루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 나가려 한다.

〈시퀀스1 – 방황〉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10대 청소년 시기를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 라고 부르는 듯하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질풍노도의 시기란 20대 청춘의 시기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다. 10대의 사춘기 시절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지내 온 나에게 20대의 삶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 말로 표현하면 스펙터클한 삶이었고 현실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방황이란 소용돌이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시작은 20대에 들어 급격하게 발동한 내 충동적인 성격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대학교 4학년 2학기가 끝나갈 무렵 문득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취직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결국에는 퇴사, 그리고는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모아 둔 돈을 들고 무작정 일본 어학연수 직행,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계 회사에 취직했으나 이 역시 내 길은 아닌 것 같다 싶은 마음에 또다시 퇴사, 그리고는 번역 일에 뛰어들게 되었다. 이번 일은 나름대로 괜찮은 듯했지만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었다. 이런 벌이

로는 부모님은커녕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겠다라는 걱정과 서른을 바라보기 시작한 내 나이가 마음 한구석에 쇳덩이처럼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시퀀스2 - 만남〉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쫓기기 시작한 나는 투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는 도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속기였다. 그런 가운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전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예전에 속기를 배운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옛 동료를 통해서 바로 속기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곧 있으면 속기와 번역을 병행해서 하게 되면 돈벌이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부푼(?) 꿈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속기를 배우기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내 계획은—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좋은 쪽으로 틀어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속기라는 이 길이 내 길이구나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이다. 그리고 이왕 이 길로 걸어갈 거면 그 분야에서 제일 의미 있는 곳에서 일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레 내 목표는 '국회속기사'가 되어 있었다.

〈시퀀스3 - 도전〉

목표를 세운 건 좋았지만 자격증을 따기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다 큰 성인이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속기 공부에만 매진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솔직히 말하면 여태까지 멋대로 살다가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창피했던 것도 한몫했다—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오전에는 속기 연습을 하고 오후와 밤에는 일을 했고 3급 자격증을 딴 이후에는 번역 일을 관두고 속기 일을 시작. 1급 자격증, 국회 필기 · 실기 준비를 병행하였다. 덕분에 수면 시간은 확 줄어들고 육체

적인 피로감도 장난이 아니었지만 그때만큼 열심히 살아본 기억이 없던 것 같다.

필기 준비를 시작한 같은 해 2012년 혹시나 해서 처음으로 도전해 본 시험에 1차 필기시험에서 역시나 멋지게 미끄러졌다. 실망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이기 때문이었는지 다행히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2013년 두 번째 시험에 도전했다. 이번에는 작년과는 달리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시험에 임해서인지 필기시험장에 도착해서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긴장감에 계속해서 손에 땀이 찰 정도였다. 그렇지만 다행히 1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2차 시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필기시험 때보다 긴장감이 덜하였고 그 덕분에 큰 문제없이 차분하게 실기시험에 응할 수가 있었고 2차 실기시험도 통과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대망의 3차 면접!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 마지막 관문을 앞둔 극도의 긴장과 미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고 있는 걸 보면 나름대로 괜찮게(?) 대답한 것이 아닐까라는 약간의 자만감 섞인 예상을 해 본다.

〈에필로그 – 시작〉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내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나태함이었다. 시험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이제 나는 국회속기사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속기사로서 이제 막 발을 떼기 시작한 나는 속기사로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처절하리만큼 맞닥뜨리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을 꽉꽉 채우다 못해 넘쳐흐를 정도로 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지켜 나갈 것이라 다짐해 본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노력의 보상은 반드시 온다.

이 소 영

〈속기와 만남〉

대학교 졸업 전 취업이 되어 회사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20대 초반,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할 수 있는지 몰라 뭐든 부딪쳐 보고 배우던 때였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속기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여러모로 배워 두면 좋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 없이 배우자 하는 생각으로 퇴근 후 화상강의를 통해 자판 기본자리부터 하나하나 익히고 점심시간에 틈틈이 연습을 하였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좋았고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처음 배울 때부터 뭔가 흥미를 붙여 갔다. 그렇게 매일 조금씩이라도 짬을 내어 연습한 끝에 속기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협회 소개로 한양사이버대학의 강의 자막을 제작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다.

〈국회를 향한 마라톤〉

사실 처음부터 국회속기사의 꿈을 가지고 속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며, 어떤 일을 하면 그 분야 최고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 국회는 속기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전통과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으로 속기사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목표를 더 크게 잡았다.

본격적으로 수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니던 회사의 일을 재택근무로 바꾸고 필기 공부에 전념했다. 그때는 아직 시험 공고가 안 났을 때여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부터 독서실에 가서 필기 공부를, 저녁에는 집에 와서 일을 하며 실기 연습을 하였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난 뒤 채용공고가 떴고 2011년 1차 필기시험에 합격, 국회속기사의 문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아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문제는 2차 실기시험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1급 속기자격증은 있었지만 집에서 혼자 실기 연습을 한 게 전부이지 누군가와 경쟁을 해 본 적이 없었기에 내 실력을 알지 못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연습을 그저 열심히만 한 것 같았다.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한 번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실기점수 몇 점만 더 끌어올리면 된다는 생각에 2012년 다시 도전하였다. 그렇게 똑같이 1년을 또 준비했고 필기시험을 통과하였다. 이번에는 실기시험에 꼭 통과하리라 다짐하고 전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게 소수점 차이로 불합격이었다.

그때는 정말 이 길도 인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며 상심이 컸다. 하지만 뭐든 삼세번,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으며 2013년 시험에 응시했다. 필기시험은 통과했고, 실기시험 준비는 더 열심히도 아닌 미친 듯이 열심히 준비했고 드디어 실기시험의 벽을 깰 수 있었다. 여기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3차 면접 준비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한 긴 마라톤에 결국 골인하였다.

〈마무리〉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몇 년의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고 합격을 안겨 주었다. 한때는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한 벽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단단한 것처럼 느껴졌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벽이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줬던 것 같다. 앞으로도 그동안 흘렸던 소중한 땀방울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열정적인 자세로 임해야겠다.

수필속기의 위력

전 해 성

인생 칠십 고래희(古來稀)라 하는데 내 나이 78세인데도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다. 내가 지금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수필속기이다.

속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57년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어 국비로 국회속기사를 양성하고 있던 국회사무처(당시는 민의원 사무처) 부설 교육기관인 대한속기기술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이다. 1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우등으로 졸업, 취업시험도 없이 1958년 4월 9일 민의원 속기사로 채용되었고 1977년 6월 10일 법제직으로 전직될 때까지 근 20년간 속기사와 속기계장으로 의정기록업무에 종사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속기는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지만 나의 인생항로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1961년 군사혁명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국회공무원들이 해직됨에 따라 군 미필자는 취업이 되지 않아 앞다투어 군 입대를 하려 하였다. 그 당시 나는 대학 3학년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1962년 7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27세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다.

논산훈련소에서 전반기 훈련을 마친 후 부관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184명의 교육생 가운데 내가 일등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부대 중 가장 편하다는 수도육군병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내가 일등을 하도록 위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수필속기다.

두 번째, 1976년 국회연수원이 새로 개설되고 국회사무처와 도서관 사무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기 중급교육과정(1주:새마을교육, 3주:직무교육)에서 내가 일등을 했는데 이때에도 수필속기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우리 속기직 사무관도 법제직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고, 전직시험에서 속기계장 6명 중 4명이 합격하여 법제직으로 전보되었다. 속기직의 법제직 전직은 그 전

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로 속기사는 속기만 하면 된다는 행정직의 고정관념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이제까지 속기직은 의정사 기록밖에 할 수 없었던 벽을 깨고 속기직도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세 번째는 퇴직 후 준비를 위해서 1994년 58세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경영지도사 교육을 2개월에 걸쳐 650여 명이 받았는데 그때에도 내가 우등상을 받았다. 이 모두가 내가 수필속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확신한다.

현재는 내가 의정을 기록했던 때와 달리 국회에서도 컴퓨터속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컴퓨터속기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우리나라 의정사 기록에는 수필속기가 많은 공적을 남겼다.

이제 수필속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는 그 활용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내 책상 위 다이어리에는 매일 내가 해야 할 사항을 수필속기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수필속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간편하게 기록 ·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보안상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나이 되도록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수필속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57년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못 되어 속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 인연이 되어 국회에서 속기사, 속기계장, 법제관, 경위과장, 입법조사관, 입법심의관을 거쳐 전문위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현재 78세의 나이에도 100만 전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법정단체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문위원으로 15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 수필속기를 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수필속기는 직업으로는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는 많기 때문에 생활속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필속기의 보급 및 보존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교육속기란 무엇인가?

차은영(한국복지대학교 교육속기사)

1990년대에 컴퓨터속기가 개발되면서 그동안 속기 후 번문 과정을 거쳐 작성되던 속기록의 형식에서 진일보하여 회의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의 속기록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속기직업군도 단순 회의록뿐만 아니라 방송자막 및 교육 현장 지원까지 폭넓게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청각장애학생의 강의 지원을 실시간으로 맡고 있는 교육속기사, 그들이 행하는 교육속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속기란 청각장애학생의 강의 이해와 교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강의 현장에서 음성언어를 속기키보드를 이용하여 문자화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른 분야의 속기 업무에 비하여 특수하게 교육 현장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고안된 속기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원성옥 외, 2010)

그리고 이러한 교육속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 속기자격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강의 지원을 하는 자를 교육속기사라고 합니다. 교육속기사는 강의자의 말을 그대로 전사하는 것을 넘어서 청각장애학생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구어체의 말을 문어체로 전달할 때 의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여 속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제 속기 지원을 할 때 일반 회의록과 교육속기록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 '저것'은 무엇?

강의 상황에 따라 강의자가 특정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거나 그림, 도표 등을 설명할 때 '이것', '저것', '그', '여기', '저기'와 같은 다양한 대명사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속기사는 강의자의 발화 내용 그대로 속기하기보다는 직접 그 지시어를 표현해 줌으로써 청각장애학생의 강의 이해를 돕도록 합니다.

– 일 더하기 일은 몇일까?

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도식이나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한글로 풀어쓰면 단순히 글만 보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강의자의 발화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속기사들은 '일 더하기 일은 이'라는 표현을 '1+1=2'라고, '에이는 비보다 크다'라는 내용은 'a>b'라고 속기합니다.

–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봤어요?

특정 단어나 인물을 설명할 때 단순히 한글만 나열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의자가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봤어요?"라고 말씀하셨다면 교육속기사는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 읽어 봤어요?"라고, 따옴표를 이용하여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속기합니다.

- 학생들이 모두 웃는데 혼자 웃지 못하는 청각장애학생

강의 상황 중 뒤에 앉아 있던 어떤 학생이 졸다가 책상에 머리를 박아 그 소리를 들은 강의실 안의 강의자와 학생들이 웃고 있는 상황이라면 청각장애학생은 혼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합니다. 이때는 강의자가 직접 발화하지 않았더라도 강의실의 상황을 '00이 졸다가 책상에 머리를 부딪쳐서 다들 웃고 있음' 이라고 간단하게 속기해 주면 강의를 듣는 청각장애학생도 같이 웃고 넘어갈 수 있겠죠?

교육속기는 이런 문법체계를 기본으로 강의 지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속기하고, 강의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노력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속기사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나의 작은 실수도 학생의 강의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 강의 지원에 임해야 하며, 지원하는 과목의 강의 이해를 위해 사전에 전공 공부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속기 실력을 쌓는 공부, 지원하는 학과 공부 등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하며 청각장애학생의 강의 이해를 위해 더욱 정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도서

원성옥, 강병호, 정소영, 차은영, 고은미, 이창원(2010).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지침서. 한국재활복지대학 장애인능력개발원.

두바이 모래언덕, 나를 사로잡다!

홍 미 지

내가 생각하는 여행의 매력은, 낯선 땅에서 느끼는 자유와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주는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들이 시차를 두지 않고 동시에 나에게 들이닥친다면? 얄궂게도 이들은 아무 예고도 없이 오는지라 나는 쓰나미급 멘탈붕괴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멘붕 후 찾아오는 평화는 더 큰 즐거움을 나에게 선물한다.

나는 세 번의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첫 여행지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과 프랑스 파리였고, 두 번째는 독일 남부와 체코 프라하를 다녀왔다. 세 번째 여행지를 고민하고 있던 중에 아름다운 해변을 촬영한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다. 그냥 평범한 해변 사진이었을 테지만, 운명이었을까? 나는 그 사진 속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지중해의 햇살에 꽂혀 버렸다. 그래, 포르투갈, 여기다! 나의 세 번째 유럽 방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포르투갈의 환상적인 바다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음을, 내가 좋아하는 스페인에서 경험한 바르셀로나 사람들의 정열을, 숙소에서 만난 여행자들과의 재미난 에피소드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그것은 잠시 접어 두고, 이번 여행에서 보너스로 얻은 두바이에서의 하루를 적어 보고자 한다. 유럽의 길목에서 만난 두바이, 그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 느껴 보시길 기대하며……

2013년 5월 15일 23시 55분발 아랍에미레이트항공.

두근두근, 나를 유럽으로 데려다 줄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은 가장 신나는 시간이다.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은 이제 나에게는 익숙한 일이다. 나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는 심장을 즐기며 공항버스에 힘차게 올라탄다.

일찍 공항에 도착한 나는 여행 전 백미, 공항놀이를 할 생각에 비행기 티켓팅이 빨리 시작되기

만을 기다린다. 항공사 부스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복작복작 설렘 가득한 수다들이 오고 간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신사 분들도 있고 이민을 가시는지 어마어마한 짐을 카트에 가득 실은 가족들도 몇몇 있다.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되더니 기상 악화로 인해 예정된 시간에 비행기가 출발을 못 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항공사 직원에게 사정을 들으니 이러하다. 두바이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중국 현지 기상 악화로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그런데 중국행 승무원들의 법정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해 우리 항공기에 탑승해야 할 승무원들이 대신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에 탑승할 승무원들이 없어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자정까지 공항에 대기하며 내일 아침 일찍 떠날 비행기 티켓을 받아 들고 항공사에서 마련해 준 인근 호텔에서 여행의 첫 밤을 보내야 했다.

나에게 비행기 연착은 단순히 늦게 출발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내 여행 일정을 꼬이게 하고 말았다. 비행 일정이 두바이를 경유해 목적지인 포르투갈 리스본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두바이에서 리스본으로 가는 비행기는 하루에 한 대인 상황이라서 원래 예약했던 비행기는 못 타고 두바이에서 또 하루 숙박한 뒤에 그 다음날 리스본행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것이다. 경유지였던 두바이에서 스톱오버를 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부터 나의 멘붕은 시작되었다. 당장 내일 체크인 해야 될 리스본의 숙소를 취소해야 하고, 깨알같이 짜 놓았던 일정도 모두 수정해야 하고, 두바이에서 하루 머물며 그 긴 시간을 뭐 하며 지낼 것인가.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화만 내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인천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삐끗한 내 여행을 다시 잘 맞춰 놓으려면 정신줄을 잘 잡아야 했다.

우선 숙소에 예약 취소 메일을 보내고, 일정은 여행 첫째, 둘째 날 가려고 했던 곳 중에서 꼭 보고 싶은 곳 몇 군데만 돌러보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런데 두바이에서 보내야 하는 나의 금쪽같은 하루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바이는 7성급 호텔이 있는 도시로만 알고 있고 그 이외의 정보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곳에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어렵게 휴가를 내고 온 여행인데 하루라도 헛되이 보낼 수는 없다. 호텔에서 멍하니 보낼 수는 없다. 무엇이든 찾아서 해야 한다!

호텔에서 잠도 못 자고 밤새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두바이의 사막투어 프로그램 발견! 급히 투어 참가 신청 메일을 보내고 나니 시계는 새벽 3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시차 때문인지 아침이 되도록 답신이 오지 않아서 나의 불안한 마음은 계속되었다. 비행기 이륙 직전에 받은 컨펌 메일, 사막투어를 위해 내가 묵을 호텔 앞으로 픽업을 오겠단다. 비행기가 출발하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메일을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이제야 스르륵 잠이 오기 시작한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다. 드디어 유럽을 향한 비행이 시작되었다. 숙련된 기장님께 나의 안전한 여행을 맡기고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든다. 눈을 뜨면 두바이에 도착해 있겠지. 두바이, 넌 어떤 모습으로 날 맞이해 줄 거니?

두바이 도착. 시원한 공항을 나가자마자 나도 모르게 '헉!' 하는 소리가 튀어나온다. 5월 두바이의 기온은 50℃를 육박한다. 사막투어는 해가 질 때쯤 시작한다고 하더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나를 픽업하러 온 차를 타고 약 한 시간가량 달리니 사막이 저 멀리 보인다. 사막을 직접 보기는 처음이다. 예정에 없던 사막 여행을 하게 되다니, 사막과의 첫 만남에 대한 기대감에 내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한다.

사막에 도착해 투어를 하게 될 지프차로 갈아탔다. 차의 문을 열자 안에 있던 사람들도 나도 서로 놀랐다. 딱 봐도 동남아계 사람들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 대여섯 명이 타고 있었다. 나는 순간 무서움에 '타도 될까?' 라는 생각과 함께 '쫄지 말자!' 라고 생각하며 환하게 "하이~" 인사하고 차에 올라탔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들은 친구들끼리 여행 온 스리랑카 청년들이었고, 사실 동양 여자를 이렇게 가까이 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들에게 나는 너무 신기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내가 차 문을 열었을 때 그들도 나만큼 놀랐다고 한다.

나와 그 친구들은 이 투어가 끝날 때까지 함께하게 될 팀이 되었다. 나에게 그들을 만난 건 행운이었던 것 같다. 아무리 투어라지만 혼자 사막에서 모래바람만 쐬다 갈 뻔했는데 그들과 함께

체험도 하고 많은 얘기도 할 수 있어서 사막 여행이 더욱 재밌었다.

투어는 지프차로 사막 언덕을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놀이기구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신난다. 속도를 내며 사막 언덕을 한숨에 올라가더니 어느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가파르게 깎인 언덕을 차가 거의 넘어질 듯 묘기를 부리며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쌩 내달리고, 모래가 꼭 나에게 쏟아질 듯이 차를 덮친다. 완전 스릴 만점.

지프차는 한참을 그렇게 스릴 있는 질주를 하다가 사막 한가운데 정차한다. 사막에 펼쳐지는 석양은 정말 환상이다. 바다에서 바라보는 석양보다 더 아름답다. 광활한 모래언덕들 사이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에 빨려 들어가듯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 순간만큼은 사진에 담는 시간조차 아까워 나의 눈에, 나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되도록 담고 또 담았다. 아마 이때 사막의 매력에 빠졌던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사막을 그리워하며 혼자 사막앓이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래미끄럼도 타고 사진도 찍으며 놀고 난 후 다음 코스로 이동하니 ATV를 직접 운전하며 사막을 돌아다닐 수 있는 체험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내가 사막을 누비고 있다니, 정말 짜릿한 순간이다. 물론 모래로 온몸을 샤워하는 것쯤은 감수할 수 있어야 이 순간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투어의 마지막은 공연을 보며 두바이식 뷔페를 먹는 것이다. 어느새 해도 많이 저물었다. 공연장 옆에 낙타를 탈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나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친구들이 있기에 같이 낙타도 타 봤다. 낙타의 두 혹 사이에 쏙 들어가

앉아 있는 기분이란, 참 묘했다. 낙타가 쓱 일어날 때와 앉을 때는 정말 내가 굴러떨어질 것 같았다. 체험이라서 짧게 몇 바퀴 돌고 끝나서 많이 아쉬웠다. 다음에 사막을 다시 오면 꼭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해 봐야지.

모든 사막투어 일정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씻고 침대에 누워 나는 미친 듯이 웃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재밌게만 느껴졌다. 바로 어젯밤에는 갑자기 지연된 비행기로 모든 일정이 뒤틀어져서 화가 나고 두바이는 어떤 곳이냐며 멘붕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이번 여행은 망친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즐거운 여행을 하고 돌아와 이 낯선 호텔의 큰 방에 혼자 누워 있다니 '인생사 새옹지마' 라는 말이 딱 맞는 이틀이었다.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내 평생 두바이에 와 볼 생각은 안 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사막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모래언덕일 뿐이었다. 그러나 반나절이란 짧은 시간은 나를 사막의 매력에 빠지게 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두바이를 오지 않았다면 만나지 못했을 스리랑카 친구들도 좋은 인연이 되었다. 지금도 가끔씩 메일을 주고받으며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한다. 중국, 스페인, 호주에 이어 스리랑카의 친구들이 나의 메일 리스트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여행 두 번째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짧지만 강렬했던 두바이에서의 처음이자 마지막 밤이었던 탓일까, 몸은 피곤했지만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리스본행 비행기가 두바이 공항 활주로를 힘차게 달려 하늘로 뛰어오른다.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두바이, 굿바이! 꼭 다시 올게!

딱 1년 만에 다시 밟게 되는 유럽 땅. 나는 항상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에 '내년에 꼭 다시 올게' 라며 발도장을 나만의 방식으로 찍고 한국으로 돌아오곤 한다. 나만의 의식이 효험을 발휘하는 걸까, 이번에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다시 유럽에 오게 되었다. 두바이에서도 나만의 의식을 치르고 왔으니 언젠가 두바이에 또 갈 날이 오겠지.

두바이를 뒤로하고 나는 포르투갈을 향해 드디어 출발한다. 포르투갈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내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한다.

나는 지구와 사랑에 빠졌다. 사막 여행을 꿈꾸고 언젠가 꼭 킬리만자로 트래킹을 하고 남미 일주를 하겠다는 작은 꿈을 버킷 리스트에 적어 놓았다.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느끼고 싶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의 지구를 향한 사랑은 식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늘도 행복한 여행을 꿈꾼다.

7년차 국회의원 비서관이 바라보는 "보좌관의 명과 암"

박 용 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소문난 국회의원, 그 뒤에 경험 많고 유능한 보좌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그림자 인생'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가면서 주연배우격인 국회의원을 빛내고 있다. 이러한 "국회 보좌관의 세계"를 이 글을 통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 보좌관의 명

필자는 현재 7년차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생활하고 있다. 제17대 국회가 끝날 무렵인 2008년 2월에 맹형규 국회의원 인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채익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재직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에서 7년째 일을 하면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준전문가가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필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유는 워낙 방대한 보좌진의 업무 때문이다. 간략한 예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상임위원회만 네 곳이 된다. 그리고 이들의 소관 기관은 100여 곳이 넘는다. 이들의 업무를 그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파악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보좌진은 폭넓은 인맥과 정보 네트워크로 행정부나 소관 기관들이 꼼짝 못 할 정도의 핵심 자료를 요청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집행의 문제점과 각종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와 재 · 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 기간에는 카피라이터에서

밀착 수행 업무까지 다방면에 걸친 역할을 해야 한다. 의정보고서를 기획하고 선거포스터의 홍보 문구를 만드는 광고 카피를 만드는 것을 비롯해 때로는 수행 업무와 조직 관리 그리고 각종 보도자료 작성과 홈페이지 · SNS 관리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보좌진의 역할이다.

이렇듯 평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하나하나를 기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할이다. 과거에는 국회의원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가방모찌' 정도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렇다 보니 예비 보좌진들의 스펙이 정말 많이 다양해졌다.

최근에는 석 · 박사는 물론 해외 유학파와 변호사를 비롯해 회계사와 정치부 기자 그리고 금융권과 대기업 출신 인사 등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국회의원 보좌진의 세계에 입문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입문하기 위해 지원하면서 보좌진은 하나의 전문 직업군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역할과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정활동 실무진을 넘어 예비정치인의 배출로가 되고 있다. 실제 이렇게 배출된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김태호 · 이진복 · 정진섭 의원과 민주당 이해찬 · 유시민 · 박홍근 의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와 공공기관 그리고 재계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 보좌관의 암

국회의원 1명당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원 1명당 별정직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그리고 6 · 7 · 9급의 비서를 각 1명씩 둘 수 있다. 여기에다 인턴 비서 2명을 둘 수 있어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일부 직원들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진은 4~6명에 불과하다. 이 중 행정비서와 수행비서를 제외하면 실제 국회의원의

정책과 정무를 담당할 보좌진은 3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한 예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부실 국정감사'라는 얘기가 해마다 나오고 있다. 하지만 70여 개에 달하는 피감기관들을 3명 남짓의 보좌진들이 제대로 파헤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다양한 국감 이슈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보좌진들이 밤을 새워 가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국회에 대한 불만은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일부 언론에서는 '슈퍼 갑 국회의원 보좌관'이라 부르지만 실제 지역구민들에게는 '을 중의 을'이다.

'KBS 아침마당'에 출연시켜 달라는 민원부터 시작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에 이르기까지 무리한 지역구민들의 요구를 받아 대처하는 것도 보좌진의 역할이다.

더불어 각종 폭언과 욕설을 일삼는 지역구민들의 민원도 의연히 잘 대처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민원인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든지 인격을 손상시키는 발언을 할 경우 모시는 국회의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밤을 새우는 경우도 다반사다. 실제 필자는 작년 국정감사를 대비해 국회 앞에 원룸을 구하기도 했다. 이유는 좀 더 수월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다.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국감을 앞두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자료와 질의서를 다듬고 배포했으며, 국감장에서는 다른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파악해 중복되지 않게 질의서를 수정하고 추가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이 와중에도 기자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도 놓쳐서는 안 된다. 언론 노출 빈도가 곧 국정감사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새워 노력해 준비한 결과가 국정감사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면 그 어떤 직종보다 많은 쾌감을 느끼게 된다. 필자의 작년 국정감사를 예로 들면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중소

기업중앙회가 보증사업을 시행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자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 90%까지 지원되던 대기업 비중을 50% 미만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 보좌진은 다양한 업무를 통해 일반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별정직이라는 특성과 4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 중 일부가 바뀌면서 함께 직을 잃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공천을 받지 못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원직을 잃은 사례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보좌진 역시 실직자가 된다.

– 맺음말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계속 늘어 가고 있고 보좌진이라는 직종이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에 앞으로 안정적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화된 보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전문 보좌진의 신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좌진 증원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보좌진 스스로도 국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상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박용기 비서관의 부인이자 국회 속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동선 회원과 아들과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제47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14년 2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총회는 이동준 총무·재정이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성원 보고, 그리고 2013년 4월 26일 개최된 제21회 속기경기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1회 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금상 박광덕 회원, 은상 김봉철 회원, 동상 윤여일 회원으로 시상은 이철우 회장께서 해 주셨다.

그리고 협회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14개 협회 공인학원에 대한 공인학원증과 현판 수여식이 있었다.

이후 회의에서는 이철우 회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손재옥 의장대리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이동준 총무·재정이사의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3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와 조정구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세 번째 기타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3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47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편집후기

50번째 「속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50'이라는 숫자의 중압감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이 한 권 한 권 엮어 오신 정성에 누가 되지는 않았나 조심스럽습니다. 50을 넘어 100호를 향해 더욱 알차고 발전하는 속기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업무 틈틈이 수고한 홍보부장을 비롯한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경애 –

드디어 제50호 속기계가 나왔어요! 이 책자를 제 손에 받아 보기까지의 과정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좀 뭉클해지네요.

이번 속기계는 유난히 부담도 많이 되고 그만큼 쏟은 노력과 시간, 애정 또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편집후기를 쓰면서는 그래도 한 번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훨씬 더 노련하고 익숙하게 잘할 수 있겠지 했었는데, 책 한 권을 만들어 낸다는 게 역시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바쁜 가운데 틈틈이 시간 내어 아이디어 회의하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줄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원고들을 검토했던 우리 보물 같은 홍보팀의 모든 분들께 감사과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 조윤희 –

기자로서의 두 번째 작업이지만 기획에서부터 온전히 발간에 참여하는 건 처음인 50호 속기계, 그만큼 애정을 갖고 만들었지만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두근 반 세근 반입니다. 완성된 책을 읽는 순간의 행복감이 저만의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50호 속기계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황유진 –

'열에 한술 밥이 한 그릇 문문하다'라고 했나요? 오경애 이사님과 조윤희 홍보부장, 4명의 홍보부 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속기계 안팎에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아 '제50호 속기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50호 속기계를 만들면서 저 자신으로는 제헌국회 속기사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

정말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와 관련된 일 아니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지라 홍보부 기자라는 임무가 없었다면 국회 속기사 생활 10년을 넘겨도 그분들에 대해서 무지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워 몸 둘 바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홍보부 활동을 통해 제가 성장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분하게 홍보부를 이끌어 주시는 오경애 이사님, 세심하면서도 꼼꼼하게 업무를 총괄해 주신 촉촉한 조윤희 선배님, 그 외 홍보부 기자님들과의 훈훈한 인화를 통해 상당한 성과물을 냈던 홍보부 활동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속기계에 기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속기협회에서 발간하는 '속기계'에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다교 -

두 번째 편집후기를 씁니다. 기자를 맡고 난 후 두 번째로 참여하는 속기계 발간 작업이고 50회 특집이어서 부담도 크고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조금 더 나은 아이디어는 없나 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역시 이번에도 아쉬움이 조금 남지만 그만큼 디테일한 작업이 있었기에 이런 생각도 든다고 느낍니다.

독자들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51호, 52호 속기계도 힘든 작업일 거라 생각되지만 편집후기를 쓰는 이 순간에 다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집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오경애 홍보이사님과 조윤희 홍보부장님 그리고 우리 기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권오정 -

멋들어진 50호 속기계의 표지를 보고 있으니 뿌듯함이 앞섭니다. TV 프로그램도 쉰 번째 정도는 특별하게 기념하곤 하니 조금은 기쁨을 누려도 되겠지요. 훗날 많은 선후배님들이 저희가 발간하는 속기계를 볼 거라고 생각하니 그만큼 책임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원고 요청도 흔쾌히 수락해 주신 회원님들과 어느 호보다 열심이셨던 홍보이사님 이하 선배님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유준호 -

투고를 바랍니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든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대한속기협회 홍보부(국회 의정기록과)
02) 788-3083, 3183

홈페이지 : www.steno.or.kr

이 메 일 : chrissie76@assembly.go.kr

내 용 :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 안내

회　　비 :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 곳

회　　비 : 농협 302-0660-8195-21 최혜연(협회 재정부장)
협회발전기금 :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오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범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TEL. 02)788-2371~6

제50호 속기계

발 행 2014년 7월

발 행 인 이철우
편 집 인 오경애
기 자 조윤희, 황유진, 이다교, 권오정, 유준호
발 행 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디자인 · 인쇄 동국상사 (02)362-3851

전 화 02)788-2371~6
팩 스 02)788-3386, 3387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여의도동,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홈 페 이 지 http://www.steno.or.kr

비매품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전국 CAS속기 공인교육기관 지정 학원

| 오프라인 CAS교육학원 |

안정근속기학원 www.knsokgi.com
· 교통 : 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
· 전화 : 02) 3452-2255

성남한국속기학원 www.koreasokgi.com
· 교통 : 분당선 태평역 3번 출구
· 전화 : 031) 757-1064

종로스마트CAS속기학원
· 교통 : 1,3,5호선 종로3가역 2번 출구/2-1 출구
· 전화 : 02) 745-0811

수원속기학원
· 교통 : 1호선 수원역 1번 출구
· 전화 : 031) 268 - 3131

동방CAS속기학원
· 교통 : 2호선 사당역 8번 출구
4호선 사당역 9번 출구
· 전화 : 02) 2055-1991

의정부속기학원
· 교통 : 1호선 의정부역 5번 출구
· 전화 : 031) 845-1007

영등포카스속기학원 www.onoffcas.com
· 교통 : 1호선 영등포시장로터리 방면 5번 출구
5호선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
영등포 타임스퀘어 근방
· 전화 : 02) 2632-4948

울산속기학원
· 교통 : 신정시장하차>신정사거리에서
좌측신정나이스빌4층
· 전화 : 052) 261-1839

노량진신상속기학원
· 교통 : 1호선 노량진, 9호선 노들역 5번출구
· 전화 : 02) 823-8741

광주속기학원
· 교통 : 금남로1가, 문화전당역 출구, YMCA 옆
· 전화 : 062) 226-2117

인천속기학원 www.e-sokgi.com
· 교통 : 부평역(북부역) 지하상가 27번 출구
신한은행 옆 골목
· 전화 : 032) 503-2999

대구한국속기학원
· 교통 : 1호선 중앙로역 1번 출구
· 전화 : 053) 252-1323

| 온라인 CAS교육학원 |

속기에듀학원 www.casschool.co.kr
· 교통 :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3호선 교대역 10번 출구
· 전화 : 02) 522-1614

속기21속기학원 www.sokgi21.com
· 교통 : 1,3, 역 11번 출구
1호선 종로5가역 12번 출구
· 전화 : 02) 733-7000